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유철호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23년 8월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남진열

유철호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유철호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강영훈 (인)

위 원 오승은 (인)

위 원 남진열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3년 6월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Consciousness on Donation Behavior
- Focusing on the Jeju region -

Cheol-Ho Yoo

(Directed by professor Chin-Yeol Na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23.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 1 절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	8
1. 사회자본의 개념	8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12
제 2 절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
1. 공동체 의식의 개념	18
2.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	21
제 3 절 기부행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3
1. 기부행위의 개념	23
2. 기부행위 관련 요인	29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31
1. 사회자본과 기부행위 관련 선행연구	31
2. 공동체 의식과 기부행위 관련 선행연구	33
제 3 장 연구방법	35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35
1. 연구모형 설정	35

2. 연구문제	36
제 2 절 측정도구	36
1. 사회자본 측정도구	36
2. 공동체 의식 측정도구	37
3. 기부행위 측정도구	38
4.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구성	39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9
1. 자료수집	39
2. 분석방법	40
제 4 장 연구결과	41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
제 2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45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45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46
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51
제 3 절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54
제 5 장 결 론	56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56
제 2 절 기부행위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제언	58
1. 사회자본 중심의 기부행위 강화 전략	58
2. 공동체 의식 중심의 기부행위 강화 전략	61
제 3 절 연구의 한계	63
참고문헌	64
ABSTRACT	77
<부 록> 설문지	81

표 목 차

<표 2-1> 사회자본의 정의	11
<표 2-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13
<표 2-3> 공동체 의식의 정의	20
<표 2-4>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	22
<표 2-5> 202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유형별 모금액 현황	26
<표 2-6> 202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인당 기부실적	28
<표 2-7> 2017년~2021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유형별 모금액 현황	29
<표 3-1>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39
<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2
<표 4-2>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45
<표 4-3>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	46
<표 4-4>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47
<표 4-5>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	48
<표 4-6> 연구대상자의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	48
<표 4-7> 연구대상자의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	49
<표 4-8> 연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50
<표 4-9>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	50
<표 4-10>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53
<표 4-11>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55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7
(그림 3-1) 연구모형	35

국문초록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유 철 호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재정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복지재정으로 사회적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영역 비영리조직 자원개발과 기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 민간자원들의 유기적 협력과 높은 나눔 지수를 보이는 제주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기부행위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제주지역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유기적 협력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 이들 토대로 제주지역의 기부 확산 정책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기부 경험이 있는 제주도민 330명을 대상으로 단순무작위표본추출 방법으로 표집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9월 26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07명의 응답을 회수하여 291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기부행위와 사회자본, 공동체 의식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부행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본은 신뢰, 네트워크, 사회규범, 사회참여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고, 공동체 의식은 지역 애착과 사회적유대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으로 빈도분석, 평균 차이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부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 특성에 따른 결과로 가구원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부행위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에 따른 기부행위를 살펴본 결과, 신뢰가 기부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회자본의 하위영역 중 사회참여가 기부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동체 의식의 하위영역 중 지역 애착이 기부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기부행위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제언을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 중심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자본 중심행위 강화전략의 신뢰 차원에서 첫째, 기부자의 신뢰 형성과 유지를 위한 개별적 관리에 관심을 두어 모금기관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기부금 관리와 기부금 내역 공개를 제언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예비 기부자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이미지 마케팅을 제언하였다. 셋째, 신뢰는 단순 모금기관의 신뢰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믿음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제언하였다.

사회자본 중심의 사회참여 차원의 제언은 첫째, 적극적인 사회 의제 개발을 통한 공론화와 이를 알리고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둘째, 지역사회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참여 방법의 다양화를 제언하였다. 셋째,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방법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언하였다.

공동체 의식 중심의 지역 애착 차원의 제언은 첫째, 지리적 영역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제언하였다. 둘째,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품,

장소 등을 활용한 지역의 특징점을 발굴하여 상징화하는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향상과 지역 애착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들 대상의 시민 복지학교와 같은 모임을 통한 시민교육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민간자원들의 유기적 협력과 높은 나눔 지수를 보이는 제주지역의 기부 행동 예측요인을 연구하여 그에 따른 실천적, 행정적 제언을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된 시기에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제주지역을 대상으로만 진행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연구의 일반화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제어 : 기부행위, 제주지역 기부, 사회자본, 공동체 의식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빈곤, 실업, 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신사회적 위험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은 급격한 사회적 재난 등 개인이 혼자 감당해내기 힘든 사회적 문제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한 긴급한 재정이 요구된다. 한정된 정부 재정지원과 더불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조직들의 자원개발 노력은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자원개발 노력 중 비영리조직의 기부자 개발과 모금은 중요한 자원개발의 방법으로 정부 자원에 비해 기부금은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김영중, 2001). 더불어 신사회적 위험을 겪는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복지재정 부족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 마련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노법래 외, 2021).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복지예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33.8조원, 2019년 148.9조원, 2020년 167조원, 2021년 185조원, 2022년 195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예산 2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기획재정부,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복지재정의 지속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재원에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이다. 지속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연계 모금·배분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기부 주체 비율이 지역별로 상이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신열 외, 2021). 더불어 지역적으로 현금과 현물의 비중 등이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연구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기부행위와 관련한 지역별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내외 기부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모금은 지역의 문화적 배경, 사회적 관계, 산업구조, 인구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서영숙·진관훈, 2016).

우리나라 지역 중 유일하게 도 단위 행정구역으로 섬인 제주도는 여타 지역과 기부문화, 기부행위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서영숙, 2015). 실제 통계지표를 분석해보면 지역적 배경을 추론할 수 있는데, ‘2020 지역별 나눔지수 및 기부유형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현금기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8.8%의 현금기부율을 나타내는 제주지역으로 나타났다(노법래 외, 2021). 제주지역 1회당 평균 기부금액은 719,920원으로 전국 1위, 연간 기부횟수도 8.1회로 전국에서 3위, 지역별 모금단체를 통한 현금기부 횟수는 제주지역이 9.7회로 나타나며 높은 나눔지수를 보인다. 제주지역은 개인의 기부참여에서 278,094원으로 부산(290,544원), 대구(214,627원)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나눔지수를 2019년 기준으로 지역별-지표별 표준화 점수로 치환한 내역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나눔지수는 101.32 포인트로 전국 평균 나눔지수 100포인트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나눔지수를 보이고 있다(노법래 외, 2021).

지역별 모금사업 중 지역특성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지역연계모금에서도 제주지역은 특별한 양상을 보인다. 김신열 외(2021)의 ‘지역연계 모금·배분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제주지역 지역연계모금 기부자 유형별 비율은 개인기부자가 684건으로 68.6%로 215건의 법인 등 기부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타 지역에 비해 대형 법인 기업이 수가 낮고, 농수산업 위주의 1차산업과 관광산업과 연계한 소규모 사업이 많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당수 기부관련 연구들이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주지역 기부특성을 연구한 서영숙(2015)은 제주지역의 기부행위에 있어 예로부터 제주지역만의 지역공동체 나눔문화로 내려온 수눌음¹⁾, 권당문화²⁾와 같은 문화적 성향이 반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거친 자

1) 수눌음 : ‘품앗이’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제주 지방에서 이웃끼리 농사일을 돕는 지역 풍습.

2) 권당문화 : ‘권당’은 친인척을 의미하는 권당(眷黨)의 제주방언

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상호부조적 의식이 발달해 왔고, 아직도 공동체 의식 행동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기부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기부행위 결정에 있어 고려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이익, 공익 차원의 목적,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그동안 개인의 기부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수준, 소득, 종교, 취업상태, 결혼상태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그리고 세제혜택, 기부 및 자원봉사 경험, 동정심, 행복감, 기부경험의 만족, 비영리기관과 관계의 질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 공동체 신뢰, 사회자본, 공동체 의식, 주관적 계층의식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연구가 이뤄져 왔다(강중수, 2012; 강철희 외, 2012b; 강철희 외, 2020; 강철희 외, 2015; 김자영·김두섭, 2013; 서영숙, 2015; 서영숙·진관훈, 2016; 이창식·장하영, 2017; 임선영·민소영, 2015; 정민주 외, 2015; 정지수·조상미, 2021).

그중에서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기부행위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소득, 취업상태, 결혼상태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은 기부행위에 대한 일관적인 결과가 없고, 연령도 일정한 연령까지는 기부행위가 증가 양상을 보이지만 일관성이 낮다고 설명한다. 또한 성별, 학력, 종교, 소득, 취업상태, 결혼상태도 뚜렷한 기부행위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는 일관된 결과를 찾기는 힘들다(강철희 외, 2012a).

심리사회적 요인인 기부 및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등 기부경험에 만족은 기부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부노력에도 적극적이라고 설명한다(강철희 외, 2012a). 또 기부대상 기관과의 관계의 질, 상호호혜적 관계가 기부의도 및 기부행위 충성도를 조절하는 요인이라고도 설명하면서 비교적 일관된 결과들을 설명한다(정민주 외, 2015).

기부행위 예측요인을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기부처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창식·장하영, 2017)과 보다 거시적으로 확장된 수준에서 사회적 신뢰가 기부행위의 예측요인으로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강철희 외, 2012a; Bekkers, 2004). 이러한 미시적, 거시적 수준의 신뢰를 구조적 측면의 요소들과 결합한 사회자본의 개념을 기부행위 예측요인으로 주장하는 연구들은 기부행위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데 누군가의 요

청에 의한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김자영·김두섭, 2013; Brown, 2005). 사회자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태되어 유형, 무형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자본으로 사회적 주체들 간 신뢰와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이 작동하면서 축적되고 확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부행위는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이 크고 사회적 참여 수준이 높아 신뢰와 호혜성이 형성됨으로 촉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강종수, 2012; 강철희 외, 2015; 서영숙, 2015; 서영숙·진관훈, 2016; 이영수, 2022; 임선영·민소영, 2015; 정지수·조상미, 2021).

우리사회의 기부특성이 지역사회(Community) 중심이라는 점에서 기부행위를 주목하는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분석하고자 노력을 이어왔다(이창식·장하영, 2017). 사회자본이 확장된 규모의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논의되는 개념적 특성이 있다면, 지역사회 주민의 강한 결속력과 계층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김자영·김두섭, 2013). 지역사회는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연대, 지리적 공간의 구성요소 형성되는데(Hillery, 1955), 이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동질성, 책임감 공유, 공통목표 등 공동체 의식을 소유하게 된다(성희자·이강형, 2013).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상부상조 행위를 생산하고 공동체 구성원에게 원조를 제공한다(권정미·박태영, 2014). 공동체 의식은 물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은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스스로를 어떠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과 관련된 지역적 정체성을 띄는 특성이 있다(채혜원·홍형욱, 2002). 실증연구에서도 공동체 의식은 지역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기부동기와 기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식·장하영, 2017). 이처럼 공동체 의식은 지리적 기반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양덕순과 강영순(2005)은 제주는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강하며, 공통의 동질적 의식으로 지역 내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참여의 기초적 능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제주의 특성이 실제 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가 없어 학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부행위 예측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해 요약하자면, 주로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부행위가 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불

구하고 지역사회 수준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사회문화적 특성에 강하게 영향을 준 제주지역의 미시적 수준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주지역 개인 기부 확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실제 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개인 기부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부 확산 전략을 제언하는 데 있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부상조와 지역민간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잘 발달되어왔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나눔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기부행위 예측요인으로 사회문화적 특성 중 지역 기반의 유기적 협력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제주지역을 위한 기부 확산 정책 제언이 이 연구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인 기부 확산을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행정구역상 단일행정구역이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

정하였다.

둘째, 내용적 범위는 사회자본,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개념 및 특성 등 이론적 논의의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하고 활용하였으며, 기부경험이 있는 만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조사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로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사회자본,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구성요소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부행위에 대한 개념과 기부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주요 개념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실증 분석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부행위 수준간 요인 차이를 살펴본 후 조사대상자의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이러한 문헌연구 및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지역 개인 기부 확산 전략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주요연구내용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본의 개념 -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의식의 개념 -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 ○ 기부행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 행위 개념 - 기부행위 관련 요인 	→ 문헌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특성과 기부행위의 분석 	→ 집단간 차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행위 영향요인 분석 	→ 다중 회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기부 확산 전략 제시 	→ 논의 및 제언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사회의 유·무형적인 자본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인적, 문화적 자본의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1835년 Tocqueville이 당시 미국의 사회적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회의 자본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강권오, 2021). Tocqueville은 사회자본이 미국 사회에서 구성원 개인이 서로 그룹을 구성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 성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김수병·양덕순, 2017; Wilson, 1997).

사회자본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1916년, Lyda F. Hanifan이 저술한 “The Community Center”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이후 사회자본은 시민의식과 건강 및 복지, 지역사회 및 국가수준의 공동체 의식 향상과 경제발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발전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사회자본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심리적 측면이 강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서영숙, 2015)

그간 사회자본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 개념화되는 과정을 거쳐왔지만, 아직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Lin, 1999). 따라서 선행연구자들이 소개하는 공통된 개념적 정의 속에 구성요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다(김준수·김신열, 2020; 한상미, 2007). 예를 들어,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사람들 간의 친분과 인정으로 구성된 일정한 관계를 통해 얻는 실제적, 잠재적 자원들의 합이라고 정의하면서 사람 간 관계가 자원을 얻기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한다(강권오, 2021; 김준수·김신열 2020). 더불어

Putnam(1995)도 사회자본을 개인들 사이의 연계로 인식하고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수평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적 효율을 높이는 사회적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사회자본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결집은 개인이 보유한 시민적 품성을 상호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더불어 공공재로서 사회자본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총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강권오, 2021). Coleman(1988) 역시 사회자본을 개인이 소유한 경제적 자본, 인적자본과 달리 사람들 관계 속에 감춰져 서로 이익을 보게 하는 관계의 크기로 설명한다(김준수, 김신열, 2020). 따라서 사회자본을 일반적인 재화적 자본과 동일한 생산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화적 자본 없이 이뤄내기 어려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사회 구성적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김수병·양덕순, 2017). 이들 학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회자본을 개인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Fukuyama(1996)는 사회자본을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창출하는 비공식적 가치나 규범으로 설명하고, Porettes(1998)는 사회 네트워크 혹은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되어 연계 되는 행위자들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도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루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또 Woolcock(1998)은 사회자본을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 안에 내재된 정보, 신뢰, 규범들이라고 정리하였고, Lin(2001)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확인되는 자본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사회자본에 관련한 국외 연구자들은 사회자본에 있어 상호관계 또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그 관계를 통한 상호이익의 관계 내지 공동의 문제해결의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의 주장에 따르면, 유석춘과 장미혜(2002)는 사회자본을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포된 자본이라고 설명하고, 최종렬(2004)은 사회자본을 관계 발현적 속성을 지닌 정서적 연결망,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과 이들이 작동하는 결과로 발생하는 기능적 효과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지속적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연계 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사회자본을 정리하기도 한다(한상미, 2007). 정순돌과 성민현(2012)은 사회자본이란 제도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사회적 관계를 조장하는 규범과 신뢰,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동원(2009)은 사회자본을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회 속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일체의 무형의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박희봉(2013)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강권오(2021)는 사회자본을 경제적 이윤의 갖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 간의 공유된 규범과 가치, 태도 등을 통해 생성되며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자원이라고 정리하였다.

이처럼 많은 국내외 학자들은 사회자본이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하는 관계망(network)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유동성을 띠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자본의 지속적 유지를 위하여 네트워크와 신뢰, 호혜성, 규범이라는 요소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준수·김신열, 2020; Coleman, 1988; Fukuyama, 1996; Lin, 1999; Putnam, 1994). 따라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주된 내용으로 보는 사회자본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사회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관계 속에 배태되어 상호이익과 사회적 효율성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사회적 요소들의 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준수·김신열, 2020).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형성되며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전환하거나 협력적 관계망을 통하여 다른 형태를 변환할 수 있다. 둘째, 사회자본은 높은 규범과 사회구조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이 필요하며, 정부와 정권, 사법체계 등의 제도적 관계와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과 같은 공식화되거나 제도화된 관계 및 구조가 중요하다. 셋째, 사회자본은 재화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하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 이를 취득하고 잃지 않기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서영숙, 2015). 이처럼 사회자본은 국가와 지역공동체에서 개인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물질적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이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은 첫째, 개인간 상호관계로 정보 공유를 통해 기존 제도보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Serageldin & Grootaert, 2000). 둘째, 사회자본은 개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위를 조정한다. 셋째, 사회자본은 사회규범 확립을 통해 긍정적 외부효

과를 창출한다. 넷째, 사회자본은 개인과 지역공동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서영숙, 2015).

그러나 사회자본은 다음과 같은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한다. 첫째,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에게는 편익을 주지만 그 외 외부인들에게는 접근을 차단하여 배제 시킨다(박희봉, 2009). 둘째, 사회자본의 폐쇄성과 강한 결속력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과잉 욕구를 유발하여 구성원들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자본은 공동체의 참여에는 반드시 규범에 따라야 함을 요구한다. 넷째, 사회자본은 관계 확립과 유지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가 적절치 못하면 비생산적이고 비용효과성이 낮게 된다(박세경 외, 2009; Adler & Kwon, 2000).

한편,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관계적 특성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박희봉, 2002). 특히 재화적 자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재화적 자본을 제공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개인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인 방식의 동참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MF 금 모으기, 동해안 산불 성금, 코로나19로 병상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결연을 맺은 타 지역의 도움 등은 직간접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2-1> 사회자본의 정의

연구자(년도)	정의
박희봉(2013)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유석춘·장미혜(2002)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
이동원(2009)	경제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
정순돌·성민현(2012)	제도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사회적 관계를 조장하는 규범과 신뢰, 네트워크
최종렬(2004)	관계발전적 속성을 지닌 정서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과 이들의 작동결과 나오는 기능적 효과

연구자(년도)	정 의
한상미(2007)	지속적인 네트워크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혹은 힘의 총합
Bourdieu(1986)	상호 면식이 있는 관계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연계 되는 이점이나 기회 및 자원의 총합
Coleman(1988)	기능에 따라 다양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 주어진 구조 속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촉진시키는 사회구조
Fukuyama(1996)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창출하는 비공식적 가치나 규범
Lin(2001)	사회적 관계를 통해 포착된 자본
Portes(1998)	사회 네트워크 혹은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되어 얻을 수 있는 행위자들의 능력
Putnam(1994)	공동체 내에서 합리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
Woolcock(1998)	한 사람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신뢰, 규범들

자료: 강권오(2021); 김민수(2015); 유석춘·장미혜(2002)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사회자본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이라 그 본질을 정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연구자는 사회자본 개념과 구성요소들을 밝히고 그 요소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사회자본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연구를 주로 하였다. 이렇게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연구하는 이유는 사회자본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특성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임우석, 2009).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해 Putnam(2000)은 개인 사이의 연계, 여기서 생성되는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 등으로 정의하고 사회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네트워크, 신뢰, 규범을 제시하였다(강권오, 2021). 더불어 Bourdieu(1986)는 제도적 관계 증진을 위한 상호이해 및 협조의 합계라고 하였으며, Coleman(1988)은 같은 목적을 갖고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있는 신뢰와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정의했다. Putnam(2000)은 사회적 신뢰와 호혜성

의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 협력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았다. Fukuyama(1996)도 사회자본을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만드는 비공식적인 규칙 또는 합의된 규범, 참여와 네트워크를 통한 구성원 간의 관계라고 정의하였다(김수병, 2016).

앞에서 제시한 구성요소를 통해 살펴보면 사회자본이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국내의 학자들이 연구한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연구자(년도)	구성요소
소진광(2004)	신뢰, 참여, 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
홍영란(2007)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Adler & Kwon(2002)	기회, 동기부여, 능력
Bourdieu(1986)	네트워크
Bullen & Onyx(1998)	지역사회 참여, 사회에서의 적극적 활동력, 신뢰와 안전의 인식, 가족, 친구와 관계, 다양성의 포용력, 삶의 가치, 작업연계
Coleman(1988)	신뢰, 규범, 네트워크
Fukuyama(1996)	신뢰
Krishna (2000)	신뢰, 협력
Leana & Buren(1999)	관계성, 신뢰
Lin(2001)	내재자원, 위계구조, 행위
Nahapiet & Ghoshal(1998)	네트워크 형태, 적절한 조직
Narayan & Cassidy(2001)	신뢰, 규범, 집단의 성격, 사회성, 이웃관계, 협력
Putnam(1993)	사회적 신뢰, 규범, 네트워크

자료: 강권오(2021); 김민수(2015); 유석춘·장미혜(2002)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사회자본은 다차원적 개념 때문에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연구범위와 주제가 달라진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자본의 가장 구체적 실체는 관계망과 기능이라 할 수 있고 그 관계망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때 사회자본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김동윤, 2009). 또한 사회자본은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 분석 수준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미시적인 수준과 하나의 공동체, 사회, 국가를 나타내는 거시적인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Coleman은 사회자본의 기능적 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어떤 개인이 아무리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망의 구조 속에 속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신뢰와 호혜성이 없다면, 그것은 목적 달성에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없는 사회자본이라고 하였다(김동윤, 2009).

한편, 사회자본 연구 분석 수준을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기도 한다. 즉, 개인, 집단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접근방식은 사회자본을 어떤 행위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배태된 자원에 접근하거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산(김동윤·오소연 역, 2008; Lin, 2001). 혹은 사회적 연결망에 포함됨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유석춘 외 역, 2003; Portes, 1998)으로 이해될 수 있다. 더불어 공동체, 사회, 국가를 나타내는 거시적 수준의 접근에서는 사회자본을 하나의 사회, 국가 수준의 문화 및 조직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 공동체나 국가의 전통이 신뢰나 호혜성 등의 관계적 규범을 갖고 있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1) 신뢰

신뢰는 ‘타인이 행위를 함에 있어 나의 관심과 이해를 고려할 것이라는 기대감’(김동윤·오소현 역, 2008; Lin, 2001)과 ‘그 기대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유석춘 외 역, 2003; Coleman, 1988)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뢰는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하나이자 사회자본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하며(이영균·최승인, 2016), 사회자본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이재열, 1998). 신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신뢰를 통하여 개인들은 서로 협동하고 감시하는 방식으로 통제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김경식·안우환, 2005). 밀

집된 네트워크나 폐쇄된 네트워크는 신뢰를 증가시키는 상호호혜적인 관계도 더욱 향상된다. 네트워크에 더욱 깊이 개입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날수록 서로를 신뢰하는 개연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한상미,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갖춘 신뢰 관계의 대상 수만이 아니라 얼마나 중첩되는지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데, 신뢰 그 자체는 개인들 사의에 관계를 특정하는 속성일 뿐, 사회적 측면에서 그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이다(한상미, 2007).

2)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사회적 연계망 또는 연결망이라 불리며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기초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이자 원천이 되는 핵심 요소이다(한상미, 2007). 그 이유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자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한상미, 2007).

또한 네트워크란 상호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인, 조직 간 상호작용을 통한 자원을 교환하는 사회체계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교환방식은 일반적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연속적이고 무한한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진관훈·서영숙, 2016). 이런 네트워크가 없다면 사회자본은 발생하기 어렵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여 공동체 유지와 사회구조 구성을 가능하게 해준다(진관훈·서영숙, 2016). 또한, 네트워크의 크기와 범위, 밀도, 다양성 등은 네트워크 구조특성에 따라서 사회자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 논의에 있어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박세경 외, 2008).

Bourdieu(1986)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초로 제도화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Coleman(1988)은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을 이끌어내는 주된 조건이라 보았다(유석춘 외 역, 2003). Putnam(1993)은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을 명확히 증진시키고 협력과 의사소통을 보다 쉽게 하여 다른 개인 간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킨다고 하였다(유석춘 외 역, 2003). 이러한 네트워크는 과거에 성공적 관계를 협력의 경험으로 구체화하며, 미래의 협력을 위한 가치

적 준거 틀로서 기여한다고 본다(유석춘 외 역, 2003; Putnam, 1993).

네트워크는 결속형 네트워크와 교량형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결속형 네트워크가 학연, 혈연, 지연 등의 배타적 정체성을 갖는 형태를 자고 있으며, 교량형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정체성과 호혜성을 갖는 포용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Putnam, 2000). 특히 교량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비슷하지는 않더라도 지위와 권력은 어느 정도 상호 비슷한 사람 간의 관계이며 다양한 수준과 규모의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한상미, 2007).

최근에는 이 두 가지 구분 외에 연계형 네트워크까지 세분화하기도 하는데(한상미, 2007), 연계형 네트워크는 명백하고 공식적인 제도화된 권위가 서로 다른 구성원들 간의 신뢰 있는 관계의 규범으로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이영균·최승인, 2016).

한편, 구조적 차원의 네트워크는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의미할 수 있는데(강혜련, 2014),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이 포함되며 공식적 네트워크는 집단에 기초한 관계 등이 포함된다(서혜숙, 2006).

3) 규범

규범은 안정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합의와 행동 규칙으로 구성원들의 일부 행동에 제한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과 구성원 간의 동일한 이해를 돕고 성과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유미영, 2022). Coleman(1988)은 규범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고 보았으며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 간 공동의 의식을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규범 준수를 통해 상호 간 신뢰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 규범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 조직의 이익과 공익을 우선하는데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황명주, 2020).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 사회관계와 그 관계에서 정형화된 규칙을 따를지, 비정형적인 규칙을 따를지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Reimer et al., 2008). 더불어 Putnam(1993)은 규범에 의존하는 사회는 효율적인 사회이고 네트워크의 기대를

통해 확고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ukuyama(1996)는 규범을 개인 및 조직들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관계 행위라 보았다. 그리고 사회자본을 개인 및 조직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비공식적인 규범이라 하였고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가장 밑바탕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4)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작은 의미로는 개인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화제나 사회정책, 제도 등에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 크게는 지역사회의 정기 및 비정기, 자발적으로 소속되어 참여하는 정치적, 비정치적 활동 모두를 포괄한다(김예주, 2019). Putnam(1993)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본래 행동을 조율하여 사회적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이라 정의하였다(유석춘 외 역, 2003).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를 사회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Putnam, 2000). 이렇듯 Putnam은 시민이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 참여를 통해 협력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화의 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의 참여 정도를 사회자본으로 정의하였다(임우석, 2009; Putnam, 2000). 이렇게 사회적 관계에서 네트워크 등의 형성과 유지는 참여를 매개로 하여 강화된다.

한편 참여의 유형을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적 참여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프로그램, 환경에서의 의사결정에 개인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영균·최승인, 2016). 정치적 참여는 공공의 관심과 수요, 가치들을 정부와 공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데 참여 활동에는 투표와 선거운동, 공직자 접촉, 지역공동체 활동 등이 포함된다(김혜정, 2012).

한 사회에서 개인은 공동체 참여를 통하여 다른 개인들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현대 민주사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정치적, 비정치적 활동 전반의 사회참여는 사회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고경훈 외, 2012).

제 2 절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동체 의식의 개념

지역사회(local community)는 지리적 영역, 연대감, 공동의 결속이라는 특징을 갖는 공동체이고,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은 충성, 헌신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기초하며, 특히 지역사회 결속력(community solidarity)과 깊은 관계가 있다(이형하, 2005).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은 치열한 경쟁과 삭막한 이해타산으로 퇴색되고 있고(이형하, 2005),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산적 가치로 평가받게 되어 생산적이지 않은 인간은 소외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생산적 교환가치가 저하된 사회적 약자들은 공동체에서 소외되기 쉽고 그러한 이유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상태이다.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관련된 접근이론으로는 사회심리학적, 지역사회 운동적, 지역사회 계획적 접근이론이 있다(김경준·김성수, 1998). 첫 번째로 사회심리학적 접근이론은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들 간 상호작용으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요소를 친밀, 정보, 공동행동으로 나누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친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 공동의 행동으로 나타나 우리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운동적 접근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개선이나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는 전통적인 계, 두레, 향약이 있고, 해방 이후 새마을 운동, 현재 환경운동, 건강, 보건 운동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계획적 접근이론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조성을 통한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접근이론이다. 이 이론에는 지역 재개발, 도시 내 커뮤니티(community) 계획, 근린지역 조성 등이 속한다.

한편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공동체(Community)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공간 속에서 공통된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권정미·박태영, 2014). 상호

작용과 공동의 연대, 지리적 공간의 요소를 갖고 있다(Hillery, 1955). 공동체는 전문적인 집단, 공동의 목표를 갖는 지역, 마을, 조직체 등과 같은 사회적, 지리적 단위를 의미하며, 정신적, 도덕적 현상으로 타인과의 일체감과 연대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권정미·박태영, 2014).

공동체 의식은 일반적으로 같은 운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공동체라는 용어를 공동 의식, 상호작용, 유대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성희자·전보경, 2006). 즉,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 간 상부상조, 단결, 협동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권정미·박태영, 2014). 또한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갖는 소속감과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과 구성원들의 욕구가 노력을 통해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등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양덕순·강영순, 2008).

김재경(2015)은 공동체(community)를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이나 서로 간의 감정적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를 소속감, 정서적 유대감, 관계성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오영은과 이정화(2012)는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을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김경준과 김성수(1998)도 “지역사회에 속해 있어서 얻게 되는 충만된 느낌과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연대감, 지역사회와 일체감, 지역사회와 구성원 간에 중요한 의미를 공유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 개념으로 농촌과 도시 같은 지리적이고 지역적인 특징과 인간관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관계적 측면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을 한 사회의 소속감, 사회와의 일체감, 사회와 구성원 간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영향을 미친다는 의식, 사회와 구성원들과의 친밀감 등이라고 정의했다(김경준·김성수, 1998).

이와 더불어 McMillan(1996)은 공동체 의식을 지역사회 공동체에 포함된 구성원의 사회적 결속에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러한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Nasar와 Julian(1995)도 서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을 공

동체로 전제하였으며 공동체 의식은 함께 생활하면서 축적해 온 집단적 의식이라고 정의했다.

조윤득과 윤은경(2015)은 공동체 의식을 “지역을 기반으로 인식하는 소속감, 상호영향의식, 욕구충족,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하였고, 권정미와 박태영(2014)도 “특정한 지리적 사회적 공간에서 공동의 가치와 비슷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공동체라고 정의하여, 공동체의 동질성, 상호의존성, 책임감, 내면적 관계, 공동의 목표 등의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영선(2012)은 공동체 의식 연구를 통해 거주자의 개인적 특성, 사회적 교류, 물리적 환경과 주민참여 정도가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고, 공동체 의식을 귀속성, 교류성, 애착성으로 구분하였다.

공동체 의식은 그 의미와 대상의 다양성 때문에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공동체 의식의 측정을 위한 구성요소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 속의 주민 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친밀감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각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3> 공동체 의식의 정의

연구자 (년도)	공동체 의식의 정의
권정미·박태영 (2014)	지역사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
김경준·김성수 (1998)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충만된 느낌,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및 지역사회와 구성원 상호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것.
김재경(2015)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이나 서로간의 감정적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것.
성희자·이강형 (2013)	지역사회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
이현경 외(2014)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책임감, 소속감과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

연구자 (년도)	공동체 의식의 정의
이형하(2005)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게 되는 충족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연대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가 그 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받게 되는 자원을 통하여 충족되는 감정으로서 정서적 친밀감, 지역사회 구성원이 집단에 중요하다는 느낌과 집단이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느낌으로서 상호영향의식.
정승록(2017)	지역민들이 일상적인 상호작용 혹은 교류를 통해 공통 가치를 추구하며 획득된 사회적, 정서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조은득·윤은경 (2015)	근린지역을 토대로 인식되는 소속감, 상호영향의식, 욕구충족, 정서적 유대감.
McMillan & Chavis (1986)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구성원들이나 그룹의 문제를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
Reid(2015)	같은 지역주민과 긴밀하고 정기적인 정서적 유대가 지속되고,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

자료 : 김경준(1998); 김경준·김성수(1998); 김대건(2011); 배민영(2019); 양덕순·강영순(2008)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2.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소속된 구성원이 갖는 공통된 의식이라고 말한다(유미영 외, 2022).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 속의 주민 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친밀감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따라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친밀감은 지역사회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발생하는 만족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상호영향의식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게 된다(박지인, 2021).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 관련하여 먼저 공동체 구성요소를 설명하자면, Hillery(1955)는 공동체 구성요소를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지리적 영역(geographical area), 공동 연대(common tie)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네트워크와 조직, 사회체계와 제도를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공동체 형성과 유지까지의 전체 과정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말하는 개념이다(김대건, 2011). 공동연대는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징적, 심리적, 문화적 현상을 일컬으며, 이와 같은 현상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성원 간 일치감과 협동 정신이라고 보았다(김대건, 2011).

한편,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중 Glynn(1981)은 공동체 의식에 대해 공동체 구조의 객관적 평가, 공동체 내 지원 관계, 공동체 주민의 유사성과 관계유형, 공동체 참여, 공동체 환경 특성, 공동체 안전 등 6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김경준, 1998). 또, 양덕순·강영순(2008)은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를 충족감과 연대감, 소속감, 정서 친밀감 등으로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권정미·박태영(2014)은 구성원의 감정, 상호영향의식, 욕구 충족과 통합, 정서적 연계를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를 정리하고 있고, 이현경 외(2014)는 귀속성, 교류성, 애착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조운득과 윤은경(2015)은 소속감, 상호영향의식, 욕구충족, 정서적 유대감을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김재경(2015)도 소속감, 정서적 유대감, 관계성을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공동체 의식이 지역성을 기반한다는 전제와 그 속에서 공유되는 정서적, 심리적 요소인 유대감, 연대감을 고려한다면, 유미영 외(2022)의 지역 애착과 사회적유대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미영(202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를 지역 애착과 사회적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체 의식의 구성 요인을 다음의 <표 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4>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

연구자 (년도)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
권정미·박태영 (2014)	구성원 감정, 상호영향의식, 욕구의 충족과 통합, 정서적 연계
김경준·김성수 (1998)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김재경(2015)	소속감, 정서적 유대감, 관계성
성희자·이강형 (2013)	마을의 인지도,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 마을의 참여도
유미영(2022)	지역 애착, 사회적유대

연구자 (년도)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
이현경 외(2014)	귀속성, 교류성, 애착성
이형하(2005)	충족감, 연대감, 친밀감, 상호영향의식
정승록(2017)	소속감, 동질감, 유대감
조윤득·윤은경 (2015)	소속감, 상호영향의식, 욕구충족, 정서적 유대감
McMillan & Chavis (1986)	멤버십, 영향력, 욕구의 통합과 충족, 정서적 연계
Reid(2015)	사회적 상호작용, 주민의 동질성, 사회적 분할, 안전과 보안, 감지된 공동체 의식

자료 : 김경준(1998); 김경준·김성수(1998); 김대건(2011); 배민영(2019); 양덕순·강영순(2008)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제 3 절 기부행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기부행위의 개념

1) 기부행위의 개념

기부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자선사업에 참여하거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자신이 물적 자원과 시간적 자원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의 목적과 자발성을 함께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선과 박애의 의미를 포함한다(박경수·김대원, 2012).

기부는 주로 ‘Giving’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Giving’은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되돌아오는 이익에 상관없이 사회에 재화의 이전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이다. 또한 ‘Donation’은 장기기증과 같은 금전적인 재화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다(김경미·이영민, 2021).

앞선 기부의 개념은 자선(charity)적 기부와 박애(philanthropy)적 기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선(charity)은 라틴어 ‘give given out of love’의 뜻인 사랑으로 주어진다

기부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으며, 개인과 개인, 또는 기부자와 대상자를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박애(philanthropy)는 라틴어 'love of humanity'에서 파생된 말로 '깊은 인간애'를 뜻하며, 인간의 존재와 가치, 경험에 대한 높은 확신과 더불어 세계에 대한 비전과 낙관적 인식을 전제로 한 기부를 의미한다(김주원, 2005; 홍은진, 2005; Johnson, 1973; Payton, 1988). Payton(1988)은 개인 간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각자가 소액을 기부하고 이러한 개인들의 기부 규모가 커질 때 수혜자 측면에서는 자선을 초월하여 박애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기부자는 앞선 기부를 실행하는 주체로 일반적으로 후원자로 불리며 개인기부자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 등으로 구분하고 현재 기부하고 있는 주체를 현재 기부자, 향후 미래에 기부를 할 수도 있는 주체를 잠재적 기부자라 이른다. 현재 기부자는 기부 동기와 참여 정도, 나이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서영숙, 2015).

기부는 기부자의 참여 형태에 따라 물질적 기부와 시간적 기부로 나눌 수 있다. 물질적 기부는 재정적, 물질적인 자원 지원을 위해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시간적 기부는 이른바 봉사활동처럼 개인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업무 지원 등의 인력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Bekkers & Wiepking, 2007).

또한 기부는 참여하는 주기에 따라 일시기부와 정기기부로 분류할 수 있다. 정기기부는 일, 주, 월, 분기 단위 등 일정한 주기를 두고서 기부에 참여하는 형태이며, 일시기부는 특정한 주거나 예정 없이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이른다. 정기기부는 기부 시기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 기부받는 기관에서 기부금의 운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 편리하다. 반면 일시기부는 불안한 사회상황이나 재해재난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긴급히 민간재원을 모집하는 등 어떠한 이슈 해결을 위해 기부하거나 일시적인 호혜성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부는 소속 및 사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의 의미는 다음 네 가지와 같다. 첫째, 기부는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국민 스스로 사회에 많은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기부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나눔 실천, 그리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하

고자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셋째, 기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기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틀을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이상호, 2009).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가 다양한 기부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기부의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는 모든 형태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비영리기관 중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기부금 모집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기부와 자선, 후원, 나눔의 등의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부를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2) 기부의 중요성 및 현황

현대사회의 기부 접근성이 쉽고 기부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소규모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도 보다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이경, 2004; 오혜진, 2002; 전지연, 2008; 정수영, 2005; 최은숙·이석호, 2011).

국내 기부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 기부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부 동기에 따른 연구(강철희 외, 2012b; 김지혜·정익중 2012), 특정 단체 기부자들의 특성(김주원·김용준, 2008), 또는 기부 중단자의 특성(정정호·김미희, 2008) 등에 관한 연구가 세분화 되어 왔다.

실제로 개인의 기부행위는 기부금 모집 주체의 노력과 활동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Desmet & Feinberg, 2003; Radley & Kennedy, 1995). 앞선 지적에도 개인기부자의 특성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모금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내·외적인 상황에 대해 중점을 연구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서영숙, 2015; 이원준, 2011; Sargeant & Woodliffe, 2007).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기부 의사나 기부금 모집기관에 대한 태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일련의 활동 같은 실체적인 활동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노연희, 2011). 이는 나이나 성별, 경제수준 등의 개인적 특성이나 과거의

기부,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험은 모집기관이 노력하여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영리조직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기부 동기나
특성의 분류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기부하는지와 같이 실제적인 기부요
인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류방, 2013; Hibbert & Horne, 1996). 또한
개인이 기부하는 동기는 간단하지 않고 내면적이나 외면적으로 어떠한 대가를 얻
고자 한다(Sargeant 1999).

이와 같은 개인의 기부행위는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 활동이
며, 나아가 지역주민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모금단체 중 모금액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1년 기부
자 유형별 모금현황을 살펴보면 개인모금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 9곳이며,
30% 미만인 지역은 8곳으로 나타났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모금 비율이 41.4%
로 전국 17개 지역 중 2위로 나타났다.

<표 2-5> 202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 유형별 모금액 현황

구분	개인모금액(원)/ 비율(%)	법인모금액(원)/ 비율(%)	기타모금액(원)/ 비율(%)	총모금액(원)/ 비율(%)
전체	155,072,202,747 (20.4)	522,614,328,602 (68.6)	84,186,504,494 (11.0)	761,873,035,843 (100)
중앙	15,906,595,278 (6.1)	222,345,360,110 (86.0)	20,420,709,217 (7.9)	258,672,664,605 (100)
서울	26,094,412,149 (23.5)	65,720,756,414 (59.2)	19,143,596,855 (17.3)	110,958,765,418 (100)
부산	7,371,205,016 (28.1)	15,367,200,099 (58.6)	3,493,812,271 (13.3)	26,232,217,386 (100)
대구	6,916,869,209 (35.6)	11,176,071,288 (57.5)	1,350,472,585 (6.9)	19,443,413,082 (100)
인천	7,478,527,151 (30.3)	14,979,547,256 (60.7)	2,222,510,351 (9.0)	24,680,584,758 (100)

구분	개인모금액(원)/ 비율(%)	법인모금액(원)/ 비율(%)	기타모금액(원)/ 비율(%)	총모금액(원)/ 비율(%)
광주	4,796,781,801 (43.7)	4,879,171,643 (44.4)	1,311,115,963 (11.9)	10,987,069,407 (100)
대전	4,443,167,950 (30.4)	9,426,008,655 (64.5)	740,476,914 (5.1)	14,609,653,519 (100)
울산	3,094,940,495 (20.9)	9,691,495,199 (65.4)	2,022,412,558 (13.7)	14,808,848,252 (100)
경기	22,306,945,072 (27.9)	50,654,501,818 (63.4)	6,951,701,768 (8.7)	79,913,148,658 (100)
강원	6,303,994,107 (28.8)	13,544,499,353 (61.9)	2,016,636,848 (9.2)	21,865,130,308 (100)
충북	3,720,378,803 (18.9)	14,282,687,223 (72.5)	1,692,431,893 (8.6)	19,695,497,919 (100)
충남	7,555,428,587 (18.5)	28,078,663,406 (68.6)	5,289,514,355 (12.9)	40,923,606,348 (100)
전북	9,216,099,182 (39.2)	11,145,973,654 (47.4)	3,133,098,344 (13.3)	23,495,171,180 (100)
전남	6,342,858,536 (30.5)	11,215,646,319 (53.9)	3,263,626,030 (15.7)	20,822,130,885 (100)
경북	10,422,659,101 (30.8)	16,072,984,358 (47.4)	7,389,728,617 (21.8)	33,885,372,076 (100)
경남	7,418,289,452 (28.1)	16,289,181,778 (61.6)	2,737,402,655 (10.4)	26,444,873,885 (100)
제주	4,354,077,419 (41.4)	5,275,036,021 (50.2)	880,997,249 (8.4)	10,510,110,689 (100)
세종	1,328,973,439 (33.9)	2,469,544,008 (62.9)	126,260,021 (3.2)	3,924,777,468 (100)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위의 <표 2-5>는 인구수를 반영하지 않은 순수 모금액의 비율을 측정한 것에 반면에 202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인당 기부실적을 살펴보면 약 67만 명의 인구의 제주특별자치도가 14,972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약 1,365만

명 인구의 경기도 5,352원으로 17위로 가장 낮은 1인당 기부실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모금과 개인모금 비율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광주광역시는 약 147만 명의 인구가 1인당 7,046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은 개인의 기부 참여가 높고 나눔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6> 202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인당 기부실적

연번	구분	인구수(명)	모금목표액(원)	모금실적(원)	달성율 (%)	1인당 기부실적	
						기부액(원)	순위
1	전국	51,738,071	695,000,000,000	761,873,035,843	(109.6)	13,433	-
2	중앙	-	255,058,000,000	258,672,664,605	(101.4)	-	-
3	서울	9,472,127	96,927,000,000	110,958,765,418	(114.5)	10,233	7위
4	부산	3,324,335	24,846,000,000	26,232,217,386	(105.6)	7,474	13위
5	대구	2,387,911	18,848,000,000	19,443,413,082	(103.2)	7,893	12위
6	인천	2,957,044	22,014,000,000	24,680,584,758	(112.1)	7,445	14위
7	광주	1,475,262	10,394,000,000	10,987,069,407	(105.7)	7,046	15위
8	대전	1,479,740	13,460,000,000	14,609,653,519	(108.5)	9,096	10위
9	울산	1,120,753	14,545,000,000	14,808,848,252	(101.8)	12,978	3위
10	경기	13,652,529	73,073,000,000	79,913,148,658	(109.4)	5,352	17위
11	강원	1,521,890	17,659,000,000	21,865,130,308	(123.8)	11,603	4위
12	충북	1,624,764	16,278,000,000	19,695,497,919	(121.0)	10,019	8위
13	충남	2,175,960	32,003,000,000	40,923,606,348	(127.9)	14,708	2위
14	전북	1,787,053	20,411,000,000	23,495,171,180	(115.1)	11,422	5위
15	전남	1,778,124	18,830,000,000	20,822,130,885	(110.6)	10,590	6위
16	경북	2,635,314	25,951,000,000	33,885,372,076	(130.6)	9,847	9위
17	경남	3,305,931	21,633,000,000	26,444,873,885	(122.2)	6,544	16위
18	제주	673,107	10,078,000,000	10,510,110,689	(104.3)	14,972	1위
19	세종	366,227	2,992,000,000	3,924,777,468	(131.2)	8,170	11위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2017년에서 2021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자유형별 모금액 변화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약 42억 원을 정점으로 2018년 약 39억 원, 2019년 약 37억 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 약 40억 원부터 2021년 약 43억 원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그리고 개인모금액 비율도 마찬가지로 2017년 45.5%에서 2018년 41.3%, 2019년 37.6%로 하락하다가 2020년 38.3%를 기점으로 2021년 41.4%까지 상승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모금액과 비율이 낮게 나온 것은 해당기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표 개인모금 프로그램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 개인모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기존에 개인기부 영역으로 기부하던 건 중 일부가 사회단체, 모금 등에서 기부하는 기타모금 영역으로 변경하여 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2017년~2021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자유형별 모금액 현황

구분	개인모금액(원)/ 비율(%)	법인모금액(원)/ 비율(%)	기타모금액(원)/ 비율(%)	총모금액(원)/ 비율(%)
2017년	4,250,614,931 (45.5)	4,237,372,813 (45.3)	857,968,904 (9.2)	9,345,956,648 (100)
2018년	3,924,492,689 (41.3)	4,591,651,045 (48.3)	981,444,310 (10.3)	9,497,588,044 (100)
2019년	3,744,548,665 (37.6)	5,114,436,569 (51.4)	1,095,121,609 (11.0)	9,954,106,843 (100)
2020년	4,071,011,418 (38.3)	5,599,378,550 (52.6)	967,216,172 (9.1)	10,637,606,140 (100)
2021년	4,354,077,419 (41.4)	5,275,036,021 (50.2)	880,997,249 (8.4)	10,510,110,689 (100)

출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2. 기부행위 관련 요인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구사회학적인 변인과 심리사회학적 요인인 내적동기 요인분석 등 개인적 차원에서 기부행위를 설명

해왔다(강철희·주명관, 2007).

인구사회학적 요소를 기부행위 변인으로 설명한 연구들은 성별과 소득, 종교, 학력,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결과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으로는 개인의 기부행위를 결정짓는 요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사하였다(김자영·김두섭, 2013).

또한 김남숙(2007)은 개인들은 본인이 속한 네트워크 안에서 갖는 타인과의 관계, 사회에 소속되어 갖는 책임, 가치, 등과 같은 사회자본 요소들이 작용하여 기부행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기부경험과 심리·사회적 요소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친사회적 행동 성향을 갖고 있으며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기부 및 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이성태, 2009).

Bekkers와 Wiepking(2007)의 연구에서는 기부에 따른 세제혜택의 외적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적동기로 인해 발현했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고, 기부요청이라는 외적동기 또한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상호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기부행위의 영향요인을 설명했다.

노정식과 조현진(2009)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기부동기를 인지적 동일시, 감정적 동일시라는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동일시와 감정적 동일시 간의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지적 동일시와 감정적 동일시 사이에 발생한 상호작용이 기부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이 기부행위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Goss(1999)는 사회자본 중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요소가 개인의 시간 기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세경 외(2009)는 네트워크,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더욱 큰 금액을 기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의 기부와 행동에 대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활동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는데, Sokolowski(1996)는 개인의 회원 가입 단체 수와 종교 행사 참석 횟수, 기부에 대한 요청으로 사회적유대를 측정하였다. 이중 종교 행사 참석 횟수와 회원 가입한 단체 수가 기부금액에 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argeant와 Lee(2004)의 연구에서는 신뢰를 비영리조직의 관계 노력과 상호영향, 의사소통 수용, 기회주의에 대한 관용으로 측정하였으며, 4가지 영역 모두 개인의 기부금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강철희(2007)의 연구에서도 신뢰가 기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구지윤(2013)은 사회자본을 신뢰와 사회참여로 측정하였는데, 개인의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부에 더욱 참여하게 되고, 더욱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철희 외(2012b)의 연구에서는 사회가 갖는 신뢰가 소득대비 기부규모의 기부노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관해서 두 연구에서는 공통되게 개인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개인의 사회적 책임성이 적극적으로 나타나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가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자본은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자본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와 구성요소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선영·민소영, 2015).

공동체 의식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공동체라는 유대감을 갖고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식인 봉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기부 태도만이 아니라 기부 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 2013; 김현승, 2013; 오미섭, 2016). 또한 정형식과 김영심(2014)은 자선단체 기부자의 기부행동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 연구에서 사회적규범과 공동체 의식 모두 기부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우선으로 증진할 수 있는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유도하는 것이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자본과 기부행위 관련 선행연구

사회자본과 기부행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으로 검토한 국외의 연구들은 공통

적으로 기부행위와 사회자본 간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자본은 집합된 행동을 향상하며 공동체에 소속된 개인들의 기부행위를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Brown & Ferris, 2007).

김남숙(2007)은 개인의 연령, 소득, 이타적 경험, 기부처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이 사회 속에서 갖는 타인과의 관계성, 사회에 대한 책임, 가치 공유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작용하여 기부활동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박세경 외(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네트워크와 신뢰와 같은 사회적동기와 사회연결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공익을 지향하는 이타적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기부행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Brown & Ferris(2007)는 사회자본이 기부와 자원봉사에 있어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Goss(1999)는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사회자본이 개인의 시간 기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Bryant 외(2003)는 개인의 사회연결망 확장정도가 자선적 기부행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Wiepking & Mass(2009)은 더 확장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개인이 더 많은 재화를 기부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자본을 신뢰와 사회참여로 측정한 구지윤(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기부하려는 기부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을수록 기부 참여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개인의 사회적 책임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발현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서영숙(2015), 서영숙과 진관훈(2016), 최예나와 김이수(2015)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기부기관의 신뢰가 높을수록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각종 모금기관 및 후원금 모집기관에서는 기부금 모집 및 운용 등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기부자의 기부동기를 높여 더욱 많은 기부금 모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해숙(2008)의 연구에서는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추가 기부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류방과 김세범(2013)의 연구에서는 기관의 신뢰가 개인의 기부참여 독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신뢰는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는 Coleman의 정의에 부합하여 상대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 확보된 상태에서 개인의 기부행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자본을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규범 등의 총합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연구한 임선영과 민소영(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기부액에 더 많이 참여하고 기부금액 또한 높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다른 하나인 사회참여와 기부행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도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들이 있었다. 강종수(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가 개인의 기부인식과 기부금액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영숙(2015), 서영숙과 진관훈(2016)의 연구에서도 사회참여가 기부지속의사와 기부금액, 기부 횟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의 시각마다 사회자본에 대한 서로 다른 조작적 정의와 구성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국외 연구들은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에서 신뢰, 규범, 호혜성, 사회참여, 네트워크에 집중하면서 기부행위와의 관계 검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에 국내의 연구들은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신뢰, 규범, 호혜성, 네트워크에 집중하여 기부행위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신뢰와 호혜성, 규범 등의 개념이 함께 포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기부행위와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선행연구들의 접근방식에 대한 신뢰와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기부행위와 사회자본의 관계 연구에서 개념의 정의 및 측정상에서 일괄된 접근과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에서 신뢰, 네트워크, 사회규범, 사회참여를 통해 제주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기부행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 공동체 의식과 기부행위 관련 선행연구

공동체 의식과 기부행위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형식과 김영심(2014)은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규범 모두가 기부행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부경험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애정과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부행위에 더 적극적이라고 설명하고 과거의 기부경험으로 기부에 관한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공동체 의식이 낮다면 기부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재희와 이경상(2017)의 청소년 온라인 포인트 기부 참여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기부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과 기부참여 횟수가 많은 집단이 공동체 의식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부행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고 나아가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전신현(2022)은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계획된 행동이론 요인인 주관적 규범과 태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기부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요소인 사회 신뢰와 공동체 의식은 계획된 행동이론 요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여 기부 경험이 있는 개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기부의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기부행위 증진을 위해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창식과 장하영(2017)는 공동체 의식이 기부태도와 기부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고, 기부와 관련된 심리·사회적요인은 기부동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자본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유미영(2022)은 공동체 의식의 요소인 지역 애착과 사회적유대가 사회자본과의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는 모두가 지역 애착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애착이 높을수록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자는 일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기부행위 역시 수준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 의식의 요소인 사회적유대 또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유대를 바탕으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가 사회자본과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인 지역 애착과 사회적유대를 통해 제주지역의 특성이 담긴 기부행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제 3 장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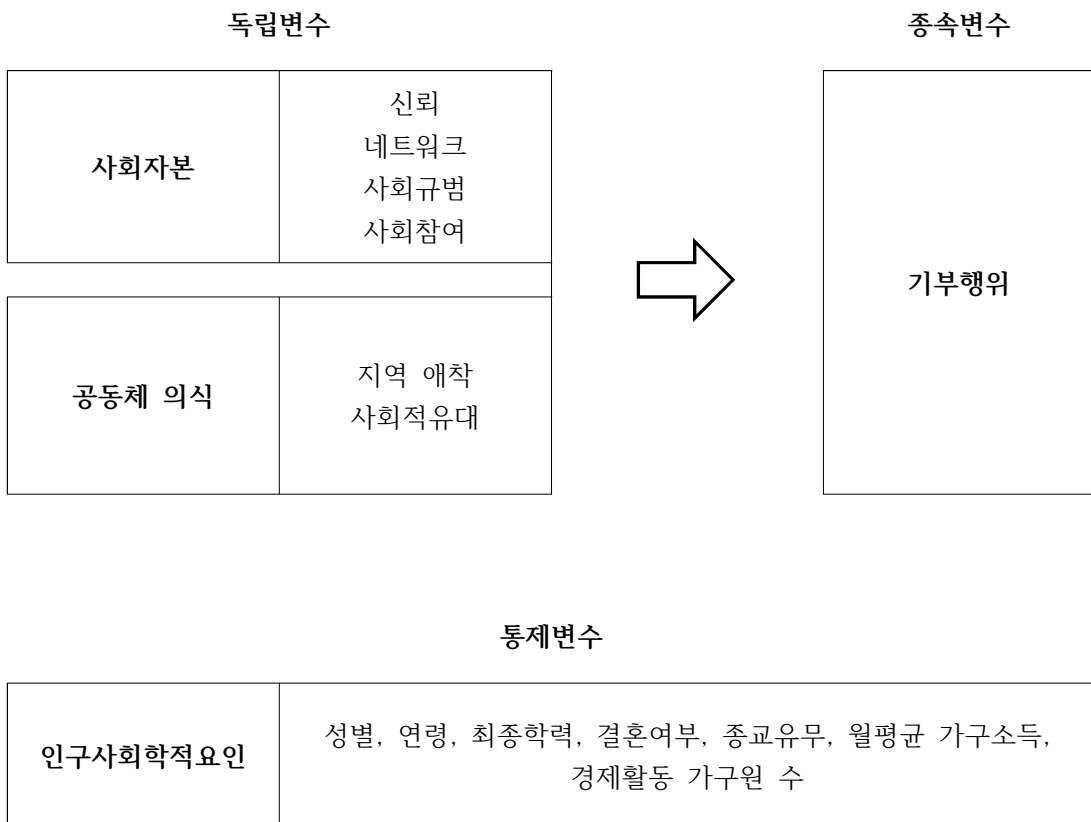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제주도민의 기부행위를 살펴보고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을 독립변수로, 기부행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인구사회학적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모형 [그림 3-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3-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래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상부상조와 지역민간의 유대와 협력적인 관계가 잘 발달해 왔다. 이러한 지역 기반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의 결과물로 추론해 볼 때,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사회자본은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사회자본은 기부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문제 2. 공동체 의식은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 공동체 의식은 기부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제 2 절 측정도구

1. 사회자본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Putnam의 사회자본 지수와 Esser의 사회자본 구조도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신뢰, 호혜성에 기반한 사회규범, 네트워크와 World Bank(2004)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여’를 구성요소로 삼아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서영숙(2015)의 사회자본 요소를 바탕으로 사용한 설문구성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첫째, 신뢰영역을 측정하는 문항은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

은 ‘가족 신뢰 정도’, ‘친척 신뢰 정도’, ‘이웃 신뢰 정도’, ‘친구 신뢰 정도’, ‘종교단체 신뢰 정도’, ‘시민단체 신뢰 정도’, ‘도 및 정부 공무원 신뢰 정도’, ‘법과 제도 신뢰 정도’, ‘정책과정 신뢰 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문항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은 지역사회 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 사회단체 및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지역 각종 사회단체 및 기관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 간 의사소통과 정보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사회규범을 측정하는 문항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우리지역주민은 법이나 질서를 잘 지킨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우리지역사회 공공부문은 비교적 청렴한 편이다’, ‘우리지역 자치단체는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사회참여를 측정하는 문항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은 ‘봉사단체 참여 정도’, ‘종교단체 참여 정도’, ‘친목단체 참여 정도’, ‘직업단체 참여 정도’, ‘정치단체 참여 정도’, ‘지역사회 행사 참여 정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에의 참여 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신뢰 .891, 사회규범 .881, 사회참여 .867, 네트워크 .843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전체 지표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924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회자본의 측정도구 및 신뢰도는 다음 <표 3-1>과 같다.

2. 공동체 의식 측정도구

공동체 의식은 유미영(2022)의 연구를 참고하여 조작적 정의하고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하위차원으로서 지역 애착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심리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

로 정의하고, ‘살고 있는 지역을 좋아함’, ‘지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지역은 안전한 곳임’, ‘지역은 다른 지역 보다 살고 좋음’, ‘지역을 옮기고 싶지 않음’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사회적유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유하는 믿음 및 헌신의 정도”로 정의하고, ‘살고 있는 지역을 좋아함’, ‘지역의 이웃은 겸손하고, 예의가 바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지역은 아름다운 풍속과 전통이 있음’, ‘살고 있는 지역은 좋은 인연을 맺기 용이함’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지역 애착 .879, 사회적유대 .846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 전체 지표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910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공동체 의식의 측정도구 및 신뢰도는 다음 <표 3-1>과 같다.

3. 기부행위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부행위는 서운경(2013)의 연구에서 활용한 기부행동 척도를 활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과거에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현재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에도 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지금까지 받은 혜택에 대하여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Likert의 5점 척도로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런 편이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기부행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748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기부행위의 측정도구 및 신뢰도는 다음 <표 3-1>과 같다.

4.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구성

<표3-1>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구분	변수		문항수	응답범위	신뢰도		출처
종속변수	기부행위		4	5점 Likert (1-5점)	.748		서윤경(2013)
독립변수	사회자본	신뢰	14	5점 Likert (1-5점)	.891	.924	서영숙(2015)
		네트워크	7	5점 Likert (1-5점)	.843		
		사회규범	7	5점 Likert (1-5점)	.881		
		사회참여	9	5점 Likert (1-5점),	.867		
	공동체 의식	지역 애착	5	5점 Likert (1-5점)	.879	.910	유미영(2022)
		사회적유대	5	5점 Likert (1-5점)	.846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요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종교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경제활동 가구원 수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기부경험이 있는 도민이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인구비율대로 표본 수를 할당하고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방법으로 표집하였다.

2022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 후, 2022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15일간 연구자가 일반 관공서, 상가, 사무실, 서비스 매장, 공공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30부를 배포하여 307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체계적 오류가 의심되거나 기부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통계분석자료 활용이 부적절한 16부를 제외한 291부를 최종 통계분석로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기부행위와 사회자본, 공동체 의식 수준을 측정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F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의 기부행위와 사회자본, 공동체 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자본 4개 변수(신뢰, 사회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 공동체 의식의 2개 변수(지역 애착, 사회적유대), 기부행위의 1개 변수(기부행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측정하고 상관관계 정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을 독립변수로, 기부행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했을 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요인과 사회자본의 하위요인, 공동체 의식의 하위요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부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R^2 와 모형의 유의도, 회귀계수 등을 측정하여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의 변수들이 기부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기부경험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민 291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4-1>과 같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21명(41.6), 여성이 170명(58.4%)으로 여성 비율이 약 16.8%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108명(37.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79명(61.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결혼여부는 미혼이 198명(68.0%)으로 기혼 73명(32.0%)보다 36.0%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종교유무는 종교 있음이 162명(55.7%)으로 무교 129명(44.3%)보다 11.4%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 61명(21.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고,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57명(19.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이 47명(16.2%) 순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2021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 77명(26.4%)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고,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이 각각 46명(15.8%)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발생 이후의 가구소득의 변화를 보면,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4.1%가 감소하고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이 5.5%가 증가하여 중간위치 월평균 가구소득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기부금액은 “1만원 이상 ~ 13만원 미만”이 61명(21.0%)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고, “13만원 이상 ~ 24만원 미만” 56명 19.2%, “24만원 이상 ~ 36만원 미만” 49명(16.8%), “36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39명(13.4%), “6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34명(11.7%) 순 등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기부금액은 74.5만원 (SD=172.212)이었다.

2019년 기부금액은 “1만원 이상 ~ 13만원 미만”이 58명(19.9%)로 가장 많은 분

포를 차지하고 있었고, “13만원 이상 ~ 24만원 미만” 56명 19.2%, “24만원 이상 ~ 36만원 미만” 47명(16.2%), “36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40명(13.7%), “6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34명(11.7%)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기부금액은 72.8만원 (SD=180.906)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발생 이후의 기부금액의 변화를 보면, “기부하지 않음”이 8.9%에서 6.2%로 감소하였으며, “1만원 이상 ~ 13만원 미만”, “24만원 이상 ~ 36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 240만원 미만”, “240만원 이상”이 각각 1.1%, 0.6%, 0.7%, 0.7%씩 증가하였고, “13만원 이상 ~ 24만원 미만”과 “60만원 이상 ~ 120만원”은 변화가 없었고, “36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은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21년 평균 기부금액이 2019년 평균 기부금액 대비 1.7만원이 상승하여 코로나19 이후 기부를 시작하거나 기부금액을 소폭 증액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은 “2명”이 143명(49.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1명” 77명(26.5%), “3명” 43명(14.8%)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경제활동 가구원 수는 2.09명(SD=.919)이었다.

기부 총 기간은 “9년 이상”이 126명(43.3%)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부를 시작한 계기는 “소속된 조직(직장)의 권유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88명(27.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부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기관을 검색하여”라는 응답이 65명(22.3%), “복지시설직원 등의 권유를 통해” 57명(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91)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21	41.6
	여성	170	58.4
연령 M=41.0세 (S.D=9.206) Min= 21세 Max= 62세	20대	42	14.4
	30대	74	25.4
	40대	108	37.1
	50대 이상	67	23.0

	구분	빈도	백분율(%)
최종학력	전문대졸 이하	63	21.6
	대학교졸	179	61.5
	대학원재학 이상	49	16.8
결혼여부	기혼	93	32.0
	미혼	198	68.0
종교유무	종교 없음	129	44.3
	종교 있음	162	55.7
2019년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8	2.7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8	6.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1	21.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7	19.6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7	9.3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7	16.2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4	8.2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18	6.2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2	4.1
	900만원 이상	19	6.5
2021년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	0.7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4	4.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77	26.5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5	15.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	10.3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47	16.2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3	7.9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19	6.5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	5.5
	900만원 이상	18	6.2

	구분	빈도	백분율(%)
2021년 기부금액 M=74.5만원 (SD=172.212) Min= 0원 Max= 2,000만원	기부하지 않음	18	6.2
	1만원 이상 ~ 13만원 미만	61	21.0
	13만원 이상 ~ 24만원 미만	56	19.2
	24만원 이상 ~ 36만원 미만	49	16.8
	36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39	13.4
	6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34	11.7
	120만원 이상 ~ 240만원 미만	18	6.2
	240만원 이상	16	5.5
2019년 기부금액 M=72.8만원 (SD=180.906) Min= 0원 Max= 2,000만원	기부하지 않음	26	8.9
	1만원 이상 ~ 13만원 미만	58	19.9
	13만원 이상 ~ 24만원 미만	56	19.2
	24만원 이상 ~ 36만원 미만	47	16.2
	36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40	13.7
	6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34	11.7
	120만원 이상 ~ 240만원 미만	16	5.5
	240만원 이상	14	4.8
2021년 경제활동 가구원 수 M=2.09명 (SD=.919) Min= 1명 Max= 5명	1명	77	26.5
	2명	143	49.1
	3명	43	14.8
	4명	25	8.6
	5명	3	1.0
기부 총기간	1년 미만	22	7.6
	1년 이상 ~ 3년 미만	42	14.4
	3년 이상 ~ 5년 미만	40	13.7
	5년 이상 ~ 7년 미만	43	14.8
	7년 이상 ~ 9년 미만	18	6.2
	9년 이상	126	43.3

구분		빈도	백분율(%)
기부를 시작한 계기	기부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기관을 검색하여	65	22.3
	TV, 라디오의 기부금 모집 광고(프로그램)를 통해	12	4.1
	모금기관의 메일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17	5.8
	거리 모금을 통해	19	6.5
	복지시설직원 등의 권유를 통해	57	19.6
	가족, 친지나 주변인의 권유를 통해	27	9.3
	친교 단체(동호회, 종교모임 등)의 권유를 통해	12	4.1
	소속 된 조직(직장)의 권유를 통해	80	27.5
	기타	2	0.7

제 2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모형은 기부행위, 사회자본, 공동체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관측변수의 총 사례 수는 291case이며, 평균, 표준편차의 값은 <표4-2>와 같다.

<표4-2>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N=291)

주요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부행위		1.75	3.50	3.04	.362
사회자본	신뢰	1.64	4.21	3.11	.491
	네트워크	1.43	4.71	3.29	.566
	사회규범	1.00	4.22	2.50	.747
	사회참여	1.57	4.57	3.07	.528
공동체 의식	지역 애착	2.00	5.00	3.92	.633
	사회적유대	1.60	5.00	3.59	.579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주요 변수인 기부행위, 사회자본_신뢰, 사회자본_네트워크, 사회자본_사회규범, 사회자본_사회참여,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의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4-3>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4-3>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

(N=291)

성별	기부행위	사회자본 (신뢰)	사회자본 (네트워크)	사회자본 (사회규범)	사회자본 (사회참여)	공동체 의식 (지역애착)	공동체 의식 (사회적유대)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남성 (n=121)	3.04 (.357)	3.13 (.522)	3.02 (.620)	3.35 (.548)	2.56 (.729)	3.92 (.611)	3.56 (.582)
여성 (n=170)	3.04 (.366)	3.12 (.522)	3.11 (.560)	3.25 (.568)	2.48 (.750)	3.92 (.650)	3.61 (.577)
t(p)	-.051 (p=.959)	.208 (p=.836)	-1.184 (p=.237)	1.426 (p=.155)	.878 (p=.381)	.071 (p=.943)	-.766 (p=.444)

(2) 연령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

연령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4-4>와 같다. 분석결과, 기부행위(F=8.678, p=.000)와 사회자본_신뢰(F=5.761, p=.001), 사회자본_네트워크(F=4.049, p=.008), 사회자본_사회참여(F=10.186,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4-4>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

(N=291)

연령	기부행위	사회자본 (신뢰)	사회자본 (네트워크)	사회자본 (사회규범)	사회자본 (사회참여)	공동체 의식 (지역애착)	공동체 의식 (사회적유대)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20대 (N=42)	2.82 (.354)	3.09 (.490)	3.15 (.552)	3.37 (.586)	2.16 (.729)	3.90 (.678)	3.57 (.606)
30대 (N=74)	3.00 (.348)	3.02 (.460)	3.05 (.628)	3.32 (.551)	3.34 (.761)	3.95 (.572)	3.64 (.551)
40대 (N=108)	3.11 (.352)	3.08 (.493)	2.95 (.590)	3.18 (.548)	2.55 (.711)	3.90 (.645)	3.52 (.583)
50대 이상 (N=67)	3.12 (.338)	3.33 (.469)	3.25 (.510)	3.40 (.555)	2.51 (.624)	3.93 (.661)	3.65 (.584)
F(p)	F=8.678*** (p=.000)	F=5.761** (p=.001)	F=4.049** (p=.008)	F=2.620 (p=.051)	F=10.186*** (p=.000)	F=.135 (p=.939)	F=.973 (p=.406)

** p < .01, *** p < .001

(3) 최종학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

최종학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4-5>와 같다. 분석결과, 기부행위(F=16.0491, p=.000)와 사회자본_신뢰(F=6.401, p=.000), 사회자본_네트워크(F=9.981, p=.000), 사회자본_사회참여(F=11.611, P=.000),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F=7.718, P=.001),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F=13.287,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4-5> 연구대상자의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

(N=291)

최종학력	기부행위	사회자본 (신뢰)	사회자본 (네트워크)	사회자본 (사회규범)	사회자본 (사회참여)	공동체意識 (지역애착)	공동체意識 (사회적유대)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문대졸 이하 (N=63)	2.96 (.362)	3.20 (.489)	3.19 (.572)	3.12 (.556)	2.55 (.561)	3.89 (.592)	3.53 (.549)
대졸 (N=179)	3.00 (.356)	3.05 (.467)	2.96 (.568)	3.25 (.563)	3.38 (.649)	3.85 (.631)	3.51 (.559)
대학원 재학이상 (N=49)	3.29 (.268)	3.30 (.528)	3.33 (.567)	3.41 (.552)	2.94 (.721)	4.24 (.610)	3.96 (.552)
F(p)	F=16.049*** (p=.000)	F=6.401*** (p=.000)	F=9.981*** (p=.000)	F=1.552 (p=.214)	F=11.611*** (p=.000)	F=7.718** (p=.001)	F=13.287*** (p=.000)

** p < .01, *** p < .001

(4) 결혼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

결혼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4-6>과 같이 결혼여부에 따라 기부행위(t=-4.634, p=.000)와 사회자본_신뢰(t=-3.485, p=.001), 사회자본_사회참여(t=-3.914, p=.000),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t=-3.078, p=.002),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t=-2.293, p=.02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4-6> 연구대상자의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

(N=291)

결혼여부	기부행위	사회자본 (신뢰)	사회자본 (네트워크)	사회자본 (사회규범)	사회자본 (사회참여)	공동체意識 (지역애착)	공동체意識 (사회적유대)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기혼 (N=93)	2.90 (.370)	2.98 (.493)	3.04 (.580)	3.25 (.571)	2.27 (.659)	3.76 (.599)	3.48 (.528)
미혼 (N=198)	3.10 (.340)	3.19 (.477)	3.08 (.590)	3.31 (.556)	2.62 (.751)	4.00 (.636)	3.64 (.595)
t(p)	t=-4.634*** (p=.000)	t=-3.485** (p=.001)	t=-.546 (p=.584)	t=-.982 (p=.327)	t=-3.914*** (p=.000)	t=-3.078** (p=.002)	t=-2.293* (p=.023)

* p < .05, ** p < .01, *** p < .001

(5) 종교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

종교유무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4-7>과 같다. 분석결과, 종교유무에 따라 기부행위($t=-3.664, p=.000$)와 사회자본_사회신뢰($t=-3.571, p=.000$), 사회자본_사회참여($t=-5.552,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4-7> 연구대상자의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

(N=291)

종교유무	기부행위	사회자본 (신뢰)	사회자본 (네트워크)	사회자본 (사회규범)	사회자본 (사회참여)	공동체 의식 (지역애착)	공동체 의식 (사회적유대)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무 (n=129)	2.95 (.385)	3.01 (.506)	3.02 (.601)	3.26 (.598)	2.25 (.759)	3.90 (.631)	3.54 (.598)
유 (n=162)	3.11 (.328)	3.21 (.461)	3.11 (.573)	3.32 (.530)	2.72 (.660)	3.94 (.636)	3.63 (.561)
t(p)	$t=-3.664^{***}$ ($p=.000$)	$t=-3.571^{***}$ ($p=.000$)	$t=-1.299$ ($p=.195$)	$t=-.770$ ($p=.442$)	$t=-5.552^{***}$ ($p=.000$)	$t=-.525$ ($p=.600$)	$t=-1.283$ ($p=.200$)

*** $p < .001$

(6)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4-8>과 같다. 분석결과, 기부행위($F=6.494, p=.002$)와 사회자본_신뢰($F=4.430, p=.013$), 사회자본_사회규범($F=4.900, p=.008$), 사회자본_사회참여($F=5.765, p=.004$),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F=6.881, p=.001$),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F=4.529, p=.01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표4-8> 연구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N=291)

월 평균 가구소득	기부행위	사회자본 (신뢰)	사회자본 (네트워크)	사회자본 (사회규범)	사회자본 (사회참여)	공동체意識 (지역애착)	공동체意識 (사회적유대)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400만원 미만 (N=138)	2.97 (.371)	3.04 (.509)	3.00 (.593)	3.19 (.577)	2.37 (.497)	3.79 (.617)	3.51 (.580)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N=77)	3.04 (.344)	3.15 (.455)	3.13 (.572)	3.35 (.518)	2.55 (.730)	3.97 (.653)	3.55 (.561)
600만원 이상 (N=76)	3.16 (.335)	3.24 (.471)	3.13 (.582)	3.42 (.544)	2.72 (.783)	4.11 (.595)	3.76 (.567)
F(p)	F=6.494** (p=.002)	F=4.430* (p=.013)	F=1.735 (p=.178)	F=4.900** (p=.008)	F=5.765** (p=.004)	F=6.881** (p=.001)	F=4.529* (p=.012)

*p < .05, **p < .01

(7) 경제활동 가구원 수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

경제활동 가구원 수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4-9>와 같다. 분석결과, 경제활동 가구원 수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4-9>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

(N=291)

경제활동 가구원 수	기부행위	사회자본 (신뢰)	사회자본 (네트워크)	사회자본 (사회규범)	사회자본 (사회참여)	공동체意識 (지역애착)	공동체意識 (사회적유대)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2명 이하 (n=220)	3.06 (.348)	3.11 (.485)	3.06 (.587)	3.28 (.564)	2.50 (.719)	3.91 (.626)	3.58 (.580)
3명 이상 (n=71)	2.99 (.398)	3.15 (.512)	3.11 (.586)	3.34 (.550)	2.53 (.810)	3.95 (.660)	3.63 (.577)
t(p)	t=1.386 (p=.167)	t=-.631 (p=.528)	t=-.562 (p=.574)	t=-.804 (p=.422)	t=-.314 (p=.754)	t=-.488 (p=.626)	t=-.704 (p=.482)

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사회자본_신뢰, 사회자본_네트워크, 사회자본_사회규범, 사회자본_사회참여,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 기부행위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계수(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한 결과는 <표4-10>과 같다. 분석결과, 변수 간 상관계수가 최저 -.084에서 최대 .708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나이는 결혼여부($r=.621, p<.01$), 종교유무($r=.242, p<.001$), 월평균 가구소득($r=.183, p<.01$), 사회자본_신뢰($r=.175, p<.01$), 사회자본_사회규범($r=.333, p<.001$), 기부행위($r=.247,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종학력은 종교($r=.137, p<.05$), 월평균 가구소득($r=.163, p<.01$), 사회자본_사회규범($r=.137, p<.05$),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r=.151, p<.01$),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r=.189, p<.01$), 기부행위($r=.259,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혼여부는 종교($r=.145, p<.05$), 월평균 가구소득($r=.267, p<.001$), 사회자본_신뢰($r=.201, p<.01$), 사회자본_사회규범($r=.224, p<.001$),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r=.178, p<.01$),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r=.134, p<.05$), 기부행위($r=.263,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교유무는 사회자본_신뢰($r=.206, p<.001$), 사회자본_사회규범($r=.310, p<.001$), 기부행위($r=.211,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경제활동 가구원 수($r=.289, p<.001$), 사회자본_신뢰($r=.152, p<.01$), 사회자본_네트워크($r=.172, p<.01$), 사회자본_사회규범($r=.182, p<.01$),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r=.165, p<.01$),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r=.145, p<.05$), 기부행위($r=.194,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활동 가구원 수는 사회자본_네트워크($r=.121, p<.05$),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r=.129,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자본_신뢰는 사회자본_네트워크($r=.529, p<.001$), 사회자본_사회규범($r=.425,$

p<.001), 사회자본_사회참여(r=.503, p<.001),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r=.400, p<.001),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r=.477, p<.001), 기부행위(r=.352,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자본_네트워크는 사회자본_사회규범(r=.207, p<.001), 사회자본_사회참여(r=.471, p<.001),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r=.439, p<.001),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r=.521, p<.001), 기부행위(r=.191,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자본_사회규범은 사회자본_사회참여(r=.374, p<.001),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r=.250, p<.001),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r=.388, p<.001), 기부행위(r=.382,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자본_사회참여는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r=.417, p<.001),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r=.493, p<.001), 기부행위(r=.261,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동체 의식_지역 애착은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r=.708, p<.001), 기부행위(r=.404,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동체 의식_사회적유대는 기부행위(r=.400,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4-10>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N=29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성별	1													
2나이	.109	1												
3최종학력	.028	.053	1											
4결혼여부	.065	.621***	.095	1										
5종교유무	.103	.242***	.137*	.145*	1									
6월평균가구소득	-.028	.183**	.163**	.267***	.083	1								
7경제활동가구원수	.056	-.084	-.030	.008	.031	.289***	1							
8사회자본_신뢰	-.012	.175**	.028	.201**	.206***	.152**	.104	1						
9사회자본_네트워크	-.084	-.018	.021	.058	.045	.172**	.121*	.529***	1					
10사회자본_사회규범	-.052	.333***	.137*	.224***	.310***	.182**	.074	.425***	.207***	1				
11사회자본_사회참여	.070	.039	.040	.032	.076	.106	.034	.503***	.471***	.374***	1			
12공동체의식_지역애착	-.004	.001	.151**	.178**	.031	.165**	.129*	.400***	.439***	.250***	.417***	1		
13공동체의식_사회적유대	.045	.009	.189**	.134*	.075	.145*	.105	.477***	.521***	.388***	.493***	.708***	1	
14기부행위	.003	.247***	.259***	.263***	.211***	.194**	-.056	.352***	.191**	.382***	.261***	.404***	.400***	1

* p < .05, ** p < .01, *** p < .001

*더미변수: 성별(남=0, 여=1), 최종학력(전문대졸이하=1, 대졸=2, 대학원재학이상=3), 결혼여부(기혼=0, 미혼=1), 종교유무(종교없음=0, 종교있음=1)

제 3 절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기부행위로 설정하고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4-11>의 회귀분석 모형은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요인과 독립변수인 사회자본_신뢰, 사회자본_네트워크, 사회자본_사회규범, 사회자본_사회참여, 공동체의식_지역애착, 공동체의식_사회적유대 요인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최종학력이 증가할수록 기부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53, p=.003$), 경제활동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기부행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4, p=.018$).

독립변수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자본_신뢰가 증가할수록 기부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1, p=.034$). 또한, 사회자본_사회참여가 증가할수록 기부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4, p=.022$). 한편, 공동체의식_지역애착이 증가할수록 기부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39, p=.001$).

연구모형의 회귀모형 결정 계수 값은 $R^2=.344$ 로 나타났고, 모형적합도는 $F=11.191(p=.000)$ 으로 회귀모형분석에 적합하였고, 공차한계(.378~.914)와 VIF(1.094~2.647) 값도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모형에 적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연구가설 1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와 연구가설 2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의 가설이 검증되었고 할 수 있다.

<표4-11>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N=291)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568	.172		9.092	.000	
성별	-.009	.037	-.012	-.243	.808	
연령	.004	.003	.090	1.333	.184	
최종학력	.090	.030	.153	2.989**	.003	
결혼여부	.040	.050	.051	.786	.433	
종교유무	.056	.038	.077	1.453	.147	
월평균 가구소득	.025	.018	.078	1.438	.152	
경제활동 가구원 수	-.049	.021	-.124	-2.378*	.018	
사회자본	신뢰	.104	.049	.141	2.130*	.034
	네트워크	.003	.039	.005	.086	.932
	사회규범	-.056	.042	-.087	-1.353	.177
	사회참여	.070	.030	.144	2.309*	.022
공동체 의식	지역애착	.137	.041	.239	3.356**	.001
	사회적유대	.066	.050	.106	1.342	.181
R=.587 R ² =.344 Adj.R ² =.314 F=11.191(p=.000)						

* p < .05, ** p < .01

*성별(남=0, 여=1), 최종학력(전문대졸이하=1, 대졸=2, 대학원재학이상=3), 결혼여부(기혼=0, 미혼=1), 종교유무(무=0, 유=1)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자본과 공동체 의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 33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기부행위 수준을 살펴보고, 사회자본,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부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영숙(2015), 최은숙(2012), 황창순과 강철희(200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기부행위가 소득에 정적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임선영과 민소영(2015)의 주장과 같이 우리사회 개인소득은 연공 서열에 의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의 증가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집단 보다 대학원 수료 이상 집단의 기부행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기부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기부행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기부행위가 증가하고 종교가 기부행위에 정적인 영향은 준다고 주장한 강철희 외(2012b)와 강철희 외(2020), 김계정 외(2015), 김미라(2021), 김자영과 김두섭(2013), 서영숙과 진관훈(2016), 임선영과 민소영(201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고, 최종학력이 높거나 종교를 갖고 있는 집단이 사회적인 책임에 의하거나 개인적 체면 및 평판에 대해 최종학력이 낮거나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더욱 신경 쓸 수 있다는 서영숙(2015)의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가구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원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수가 많을수록 기부행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부행위에 긍정적이라는 강철희 외(2012a), 강철희 외(2012b), 김미라

(2021), 김자영과 김두섭(2013), 이수연(2018), 임선영과 민소영(2015)의 연구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인 강철희 외(2020), 김유나(200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는 가구의 특성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 가구원 수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이어져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과 맞물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제주지역이 큰 타격을 받은 것과 맥을 같이 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경제활동 가구원 수는 변화가 없지만, 가구소득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영향이 기부행위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자본의 하위영역에 따른 기부행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신뢰가 기부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자가 인식하는 가족, 친인척, 이웃, 지인, 종교단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행정절차, 정책과정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증가할수록 기부행위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에 따른 기부행위를 분석한 서영숙(2015), 서영숙과 진관훈(2016)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고, 최예나와 김이수(2015)의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자본을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 규범 등 총합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임선영과 민소영(201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가 기부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한 김해숙(2008)의 연구와 기관의 신뢰가 시민의 기부참여 독려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 류방과 김세범(201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신뢰는 기대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유석춘 외 역, 2003; Coleman, 1988)으로 정의되는데 신뢰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 확보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부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사회자본의 하위영역 중 사회참여가 기부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자가 사회구성원으로 공식적인 사회현안 또는 의제개발

에 참여하거나 제도개발, 정치활동, 비정치적 활동과 같은 사회참여가 증가하면 기부행위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참여가 기부인식과 기부금액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강종수(2012)의 연구와 사회참여가 기부지속의사, 기부금액, 기부횟수와 같은 기부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서영숙(2015), 서영숙과 진관훈(2016)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애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자가 자신이 소속된 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구성들과 감정적 교류를 통해 소속감,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데 이러한 지역의 애착이 증가할수록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태도로 발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부자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동질감,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애착을 갖고 지역문제해결에 대한 기여를 위한 기부행위에도 긍정적으로 나서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의식이 기부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이창식과 장하영(2017), 전신현(2022)의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제 2 절 기부행위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제언

1. 사회자본 중심의 기부행위 강화 전략

1) 신뢰 차원

연구분석 결과, 기부자의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기부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로 거론된다(유석준 외 역, 2003; Coleman, 1988).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이 신뢰를 형

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참여, 호혜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뢰는 개인의 사회자본을 움직이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김준수·김신열, 2020). 신뢰의 대상은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과 사회로 확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뢰 가족, 친인척, 행정기관, 모금기관, 시민단체, 봉사단체 등으로 구체화하여 볼 수 있다. 신뢰의 증가가 기부자에게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근원적 힘이라는 본 연구결과를 근거에 두고 신뢰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기부자의 신뢰 형성과 유지를 위한 개별적 관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실천적 방법으로 모금기관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기부금 관리와 기부금 내역 공개를 해야 한다. 선행연구인 서영숙(2015), 서영숙과 진관훈(2016), 최예나와 김이수(2015)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기부기관의 신뢰에 대해 개선을 제언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 및 모금기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다양한 기관은 제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아울러 기부금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내부,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뿐 아니라 모금기관 스스로 윤리적 경영과 실천을 천명하는 내부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예비 기부자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이미지 마케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반 제주도민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의제 교환과 사회적 가치 있는 의제를 주도하는 적극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와 언론홍보를 통해 모금기관의 가치를 알리고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기관,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신뢰란 단순한 모금기관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감을 얻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감을 얻는 것은 단일한 기관의 노력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책과 행정절차의 일관성 유지어떤 상황에서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형성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캠페인 또는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회참여 차원

연구분석 결과, 기부자의 사회참여가 기부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는 작은 의미로는 개인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화제나 사회정책, 제도 등에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 크게는 지역 사회의 정기 및 비정기, 자발적으로 소속되어 참여하는 정치적, 비정치적 활동 모두를 포괄한다(김예주, 2019). 선행연구인 서영숙과 진관훈(2016)은 이러한 사회참여 방법으로 봉사단체, 시민단체의 참여를 넘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참여가 기부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강종수(2012)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참여가 기부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과 신뢰의 증진, 사회참여를 통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적극적인 사회 의제 개발을 통한 공론화와 이를 알리고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중심으로 의제를 개발하되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과 처한 사회적 환경에서부터 출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쓰레기 문제 등 환경 관련 이슈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에게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학계, 시민활동 조직과 연대하여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와 긍정적 경험이 보다 더 확장된 시민의 역량으로 성장하고 자발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된 시민역량은 기부행위에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 기회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참여방법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는 전통적 기부요청 방식인 오프라인 방식보다 SNS, 미디어 등 다수가 빠르게 확산이 가능한 온라인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등과 같은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모금기관, 봉사단체에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온라인

방식의 사회참여 방식은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과 대상이 전체 국민에게 확산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방법으로 사회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관광객이 연간 끊이지 않는 관광도시이자 아직 지역사회 주민 간 끈끈한 유대관계가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제주도민의 유대관계에 맞는 작은 단위의 사회참여 이슈와 소모임 형성을 지원해야 하고, 제주지역을 찾는 관광객에 맞는 보다 더 범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지역의 방학 중 아동급식 문제와 같은 이슈에 대해 인플루언서(influencer)와 협업하여 제주지역 상품구매의 수익을 지역사회 기부로 연결하는 지역모금 사례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동체 의식 중심의 기부행위 강화 전략

연구분석 결과, 기부자의 공동체 의식 중 지역 애착이 기부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 속의 주민 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친밀감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유미영 외, 2022). 공동체 의식은 지역성을 기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동류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공동체 의식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상호영향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로 발전한다(박지인, 2021). 따라서 지역 애착은 공동체 의식을 구성하는 핵심이 되고, 지역에 일체감은 지역문제와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한 기부행위 강화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지원해야 한다. 제주지역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상호의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권당문화라는 특수한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권당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는 주장도 있으나 황경수(2015)의 연구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권당문화는 제주지역 발전의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 이는 구성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오랜기간 동안 쌓아온 관계 속에서 신뢰와 호혜적 규범의 작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지역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내재화하는 적극성을 나타내도록 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권당문화는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성으로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의 발현을 위한 토대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 계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애착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 일체감의 크기에 의해 강화되는데(조운득·윤은경, 2015), 지역 애착은 일종의 지역에 대한 감정(sense of place)으로 지역 주민이 느끼는 애착으로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노운구, 2006). 따라서 지역의 인물, 장소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상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토착어를 통해서도 지역 애착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 애착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의 특징점을 발굴하여 상징화하는 방법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역명소, 지역음식, 지역어 등 제주가 가지고 있는 사회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연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심미적 애착을 강화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이미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품, 장소 등을 활용한 상징물을 기부행위에 대한 예우방법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애착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지역주민들 대상의 시민복지학교와 같은 모임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향상과 지역 애착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이 병행된다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김유정(2016)의 연구에서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는데, 평생학습 참여는 지역사회 정체성, 애착, 공동체 의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복지 현황과 정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모색을 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수준을 살펴보고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실증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기부자의 기부행위에 신뢰, 사회참여 등 사회자본의 요인과 공동체 의식 중 지역 애착과 사회적유대가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점을 검증하였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기부행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이 기부행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후속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객관성 높은 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투입한 사회자본 중 네트워크와 사회규범의 영향력이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검증한 신뢰, 사회참여가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검증되어 사회자본의 기부행위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자본의 하위변인별 독립변수투입으로 타당한지 깊이 있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18세 이상 기부경험이 있는 제주도민으로 한정하였으나, 제주도민 중 사업자, 기업후원 등 다양한 기부금 출처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후속연구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설계를 통해 보다 더 명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응답자의 심리·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권오(2021). 사회적 자본의 분석을 통한 정책 유형별 갈등과 순응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강종수(2012). 중소도시 지역사회자본이 복지 자원개발에 미치는 효과: 기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0권, pp.239-262.
- 강철희(2007).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Simultaneous Equation Model 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3호, pp.5-32.
- 강철희·주명관(2007). 기부대상영역에의 기부참여행동과 기부정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6권, pp.89-137.
- 강철희·김계정·허영혜(2012a). 종교적 기부 및 상호부조적 기부와 자선적 기부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양한 형태의 기부행동 간 연관성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9권 제1호, pp.163-197.
- 강철희·최명민·김수연(2012b).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행복감과 사회적 신뢰 및 두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4권 제2호, pp.57-82.
- 강철희·최민지·강아름(2020). 가구 단위의 세속적 기부, 종교적 기부, 상호부조적 기부행동 간 관계와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 - 기부규모와 기부노력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제72권 제1호, pp.139-173.
- 강철희·황지민·오양래(2015). 사회자본과 나눔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 호혜, 규범의 영향력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42권 제2권, pp.1-32.
- 강혜련(2014). 노인의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본,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 고경훈·안영훈·김건위(20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고이경(2004). 기부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구지윤(2013).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7권, pp.93-22.
- 권정미·박태영(2014). 도농지역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1권, pp.127-154.
- 김경식·안우환(2005).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열 탐구, 「중등교육연구」, 제53권 제1호, pp.29-50.
- 김경미·이영민(2021). 기부의도 및 기부장려금 신청의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기부동기 및 기부행동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제20권 제4호, pp.189-221.
-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경준·김성수(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제23권 제2호, pp.211-232.
- 김계정·장진민·남초롱(2015). 한국시민 유산기부의향의 저해요인 및 촉진요인에 관한 연구: 상호작용효과 분석.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제47권, pp.57-87.
- 김남숙(2007). 기부활동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대건(2011). 지역공동체의식이 협력적 갈등해결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1호, pp.67-93.
- 김동윤·오소현 역(2008). 『사회자본』,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동윤(2009).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4호, pp.38-64.
- 김미라(2021). 지역사회복지관 기부자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김미숙(2013). 청소년의 기부동기와 기부태도 관련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 「한서대학교 대학원」.
- 김민수(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과 임파워먼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수병(2016).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김수병·양덕순(2017).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2(1), pp.199-237.
- 김신열·김은정·장영은·김소영·김준수·오양래·이승희·박성희·추수현·김만준(2021). 지역연계 모금·배분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제2020권 제10호, 1-255.
- 김영중(2001).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의 재정자원 수급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4권, pp.64-90.
- 김예주(2019).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네트워크와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유나(2002). 기부행동 및 기부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기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유정(2016).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학습성과인식과 지역사회애착 및 지역공동체의식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광주대학교 대학원」.
- 김자영·김두섭(2013).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2호, pp.401-430.
- 김재경(2015).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해와 현황분석, 「사회복지경영연구」, 제2권 제2호, pp.281-294.
- 김주원(2005). 대학기부자와 자선기부자의 기부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주원·김용준(2008). 자선단체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부행동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제37권 제3호, pp.629-658.
- 김준수·김신열(2020).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사회자본과 직무성과 관계에서 직업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3호, pp.143-167.
- 김지혜·정익중(2012).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 대체관계인가?,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2호, pp.133-158.
- 김혜숙(2008).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관계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현승(2013). 자선단체 기부자의 심리적 요인이 기부태도와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혜정(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 pp.213-240.
- 노법래·김윤민·박미진·이하은·문영민·임예원(2021). 2020 지역별 나눔지수 및 기부유형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제2020권 제11호, pp.1-260.
- 노연희(2011). 사회복지조직의 기부자 관리 및 조직에 대한 기부자 인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3권 제1호, pp.1-31.
- 노윤구(2006). 축제에 대한 지역사회 애착도가 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노정식·조현진(2009). 인지적 동일시와 감정적 동일시의 상호작용 효과를 이용한 기부금 조성 전략,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3호, pp.1651-1677.
- 류방(2013).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기부동기가 기부만족과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신뢰,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류방·김세범(2013). 기부자의 기부동기가 기부 만족, 신뢰 및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제12권 제1호, pp.63-96.
- 박경수·김대원(2012). 초·중등 교사의 기부행위 지속성에 관여하는 요인, 「시민사회와 NGO」, 제10권 제2호, pp.221-248.
- 박세경·강혜규·김형용·박소현(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강혜규·이준영·정진경·한동우·박소현(2009).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지인(2021).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박희봉(200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정부학연구」, 제8권 제1호, pp.1-44.
- 박희봉(2009). 사회적 자본 :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조명문화사」.
- 박희봉(2013). 행정 이슈 생: 이슈 포커스 2;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현황과 문제점, 「지방행정」, 제62권 제721호, pp.18-21.
- 배민영(2019) 사회적 배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및 지역사회 주민참여가 농촌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서영숙(2015).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서영숙·진관훈(2016). 사회적 자본이 기부지속성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57권, pp.111-138.
- 서윤경(2013). 근로소득자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서혜숙(2006).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성희자·이강형(2013).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참여와 공동체의식이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4호, pp.315-332.
- 성희자·전보경(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7권 제1호, pp.149-170.
- 소진광(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6권 제1호, pp.89-117.
- 신영선(2012). 농촌마을 주민 공동체의식 연구: 공동체의식 측정항목 도출 및 형성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심주현(2015). 지역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평생교육 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양덕순·강영순(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특별

- 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제1호, pp.71-89.
- 오미섭(2016). 융합적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의 매개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7권 제1호, pp.183-188.
- 오영은·이정화(2012). 사회적관계망 크기와 지역사회공동체의식이 단독가구 농촌 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독거노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3권, pp.555-580.
- 오혜진(2002). 자선적 기부참여자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유미영·조동혁·조희준(2022).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사회자본, 공동체의식 및 주민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품질경영학회지」, 제50권 제3호, pp.333-347.
- 유미영(2022).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사회자본, 공동체의식 및 주민만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유석춘·장미혜(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제8권, pp.87-125.
-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pp.27.
- 이동원(2009). 미래자본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FUTURE HORIZON」, 제3호, pp.16-17.
- 이상호(2009). 기부경험 및 의도에 따른 집단별 기부행동 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대학원」.
- 이성태(2009).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이수연(2018). 기부행동에 관한 다층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영균·최승인(2016). 노인사회활동 참여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0권 제2호, pp.151-180.
- 이영수(2022). 사회자본의 개념과 현황, 「보건복지포럼」, 2022(4), pp.6-20.
- 이원준(2011).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이재열(1998). 민주주의, 사회적신뢰, 사회적자본, 「사상」, 제37권, pp.65-93.
- 이재희·이경상(2017). 청소년의 온라인 포인트 기부 참여 실태 및 효과, 청소년학

- 연구, 제24권 제2호, pp.167-190.
- 이창식·장하영(2017).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기부기관신뢰가 기부동기와 기부태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제15권 제4호, pp.83-89.
- 이현경·조성혜·김정희·김윤경·추향임(2014). 농촌지역 중년과 노인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과학회지」, 제44권 제6호, pp.,608-616.
- 이형하(2005). 대도시지역 노인과 농촌지역 노인의 공동체 의식 관련요인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8권, pp.231-254.
- 임선영·민소영(2015). 개인의 기부행동 영향요인에 대한 다수준 분석, 「GRI 연구논총」, 제17권 제1호, pp.47-69.
- 임우석(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전신현(2022). 대학생의 기부 시작과 지속 원인 비교; 계획된 행동이론, 기부동기, 사회자본 요인들의 통합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9권 제1호, pp.179-206.
- 전지연(2008). 개인 기부자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정민주·박정은·박민혜(2015). 개인기부자들의 과거 기부경험만족이 기부의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질의 매개적 역할과 상호호혜성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제18권 제2호, pp.1-19.
- 정수영(2005). 개인기부자의 기부 관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정순돌·성민현(2012).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4호, pp.249-272.
- 정승록(2017). 독거노인의 동네환경 무질서 인식과 우울,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기독교 상담적 의의, 「신학과 실천」, 제56권, pp.471-492.
- 정정호·김미희(2008). 기부중단자의 특성 및 기부행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 구」, 제37권, pp.241-266.
- 정지수·조상미(2021). 사회적자본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나눔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7권 2호, pp.63-87.
- 정형식·김영심(2014). 자선단체 기부자의 기부행동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 과거 기부경험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13권 1호, pp.115-141.
- 조윤득·윤은경(2015). 독거노인의 우울·불안감과 사회참여와의 관계에 미치는 지역사회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제70권, pp.223-244.
- 진관훈·서영숙(2016).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제43권 제2호, pp.111-134.
- 채혜원·홍형욱(2002).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접근방법과 쟁점, 「가정과삶의 질연구」, 제20권 제1호, pp.33-44.
- 최예나·김이수(2015). 사회적 자본과 주민행복간 관계에 관한 연구: 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권 제4호, pp.53-78.
- 최은숙(2012). 개인의 사회단체 참여 수준과 기부, 자원봉사와의 관계: 공적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최은숙·이석호(2011).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기부 및 자원봉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8권, pp.115-140.
- 최종렬(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제38권 제6호, pp.97-132.
- 한상미(2007).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유형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1권 제1호, pp.211-237.
- 홍영란(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RR2007-16). [KEDI] 연구보고서, pp.1-294.
- 홍은진(2005). 기부참여와 기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7권 제3호, pp.123-152.
- 황경수(2015). 사회적 자본이 제주지역 공동체 문화인 권당문화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3호, pp.1764-1772.
- 황명주(2020). 사회적 자본이 지역공동체 의식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황창순·강철희(2002).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선적 기부 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1권 제2호, pp.33-73.

2. 국외문헌

Adler, P. S., & Kwon, S. W. (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Adler, Paul S. and Kwon, Seok-Woo. (2000). Social Capital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oston : Burtworth Heinemann.

Bekkers, R., & Wiepking, P. (2007). Generosity and philanthropy: A literature review. Available at SSRN 1015507.

Bekkers, R. H. F. P. (2004).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Netherlands: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Utrecht University.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Greenwood.

Brown, E. (2005). College, Social Capital, and Charitable Giving, in Arthur C. Brooks. (eds.). *Gifts of Time and Money: The Role of Charity in America's Communitie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185-204.

Brown, E. & Ferris, J. M. (2007).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2), pp.85-99.

Bryant, W. K., H. Jeon-Slaughter, H. Kang, and A. Tax (2003), Participating in Philanthropic Activities: Donating Money and Tim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6(1), pp.43-7.

Bullen, P., & Onyx, J. (1998).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 in NSW: A Practitioner's Guide. Centre for Australian Community Organisations and Management,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95-120.
- de Tocqueville, A. (1835). *Government of the Democracy in America*. Democracy in America.
- Desmet, P., & Feinberg, F. M. (2003). Ask and ye shall receive: The effect of the appeals scale on consumers' donation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4(3), pp.349-376.
- Fukuyama, F. (1996).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Simon and Schuster.
- Glynn, T. J. (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9), pp.789-818.
- Goss, K. A. (1999). Volunteering and the Long Civic Gener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8(4), pp.378-415.
- Hanifan, L. J.(1916).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r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7, pp.130-138.
- Hibbert, S., & Horne, S. (1996). Giving to charity: questioning the donor decision proces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3(2), pp.4-13.
- Hillery,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pp.111-123.
- Johnson, D. B. (1973). *The charity market: Theory and practic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ed.) *The Economics of Charity*, Surrey.
- Krishna. A., (2000). Creating and Harnessing social capital, Dasgupta and Serageldin(esd), 2000: 71-93.
- Leana III, C. R., & Van Buren, H. J. (1999).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employment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3), 538-555.
- Lin, N. (1999). Social networks and status attain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1), pp.467-487.

- Lin, 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Millan, D. W. (1996).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pp.315-325.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theory and defini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pp.6-23.
-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242-266.
- Narayan, D., & Cassidy, M. F., (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2): 59-102.
- Nasar, J. L., & Julian, D. A. (1995).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the neighborhood.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1(2), pp.178-184.
- Payton, R. L. (1988). *Philanthropy: Voluntary action for the public good*. Greenwood.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pp.1-24.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13, Spring, pp.35-42. Elinor Ostrom and TK Ahn. 2003. *Foundation of Social Capital*.
- Putnam, R. D. (1994). Social capital and public affairs.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pp.5-19.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pp.65-78.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Reid, S. (2015). Exploring social interactions and sense of community in multi-owned proper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Markets and*

- Analysis. 8(4), pp.436-450.
- Radley, A., & Kennedy, M. (1995). Charitable giving by individuals: A study of attitudes and practice. *Human Relations*, 48(6), pp.685-709.
- Reimer, B. Lyons, T. Ferguson, N. and Polanco, G.. (2008). Social capital as social relations: the contribution of normative structures. *The Sociological Review*, 56(2), pp.256-274.
- Sargeant, A. (1999). Charitable giving: Towards a model of donor behaviou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4), pp.215-238.
- Sargeant, A. and Lee, S.(2004). Trust and Relationship Commitment in the United Kingdom Voluntary Sector: Determinants of Donor Behavior. *Psychology & Marketing*, 21(8), pp.613-635.
- Sargeant, A., & Woodliffe, L. (2007). Individual giving behaviour. *The Routledge companion to nonprofit marketing*, 117.
- Serageldin, I., & Grootaert, C.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 Sokolowski, S. W. (1996). Show Me the Way to the Next Worthy Deed: Towards a Microstructural Theory of Volunteering and Giving. *Voluntas*, 7(3), pp.259-278.
- Wiepking, P., & Maas, I. (2009). Resources That Make You Generous: Effects of Social and Human Resources on Charitable Giving. *Social Forces*, 87(4), pp.1973-1995.
- Wilson, P. A. (1997). Building social capital: A learning agend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Urban Studies*, 34(5-6), pp.745-760.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pp.151-208.
- World Bank. (2004). *Where is the Wealth of the Nations*.

3. 웹사이트

국세청(2022).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http://npoinfo.hometax.go.kr>

기획재정부(2022). 재정통계,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8>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22). 경영공시, <https://chest.or.kr/lf/ct/initMngmtplntf.do>

ABSTRACT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Consciousness on Donation Behavior

- Focusing on the Jeju region -

Cheol-Ho Yo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s social disasters such as coronavirus infection-19 (COVID-19) increase in our society, the need for welfare finance is increasing. However, due to limited welfare finance, there is a limit to responding to social disasters, so the importance of resource development and donation to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sector for continuous social service provision is increasing.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systematic cooperation of local private resources and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Jeju, which show a high sharing index, have a positive effect on donation.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consciousness formed in an systematic cooperative relationship based on a regional basis in the Jeju region affect donation behavior, and based on these, to propose a policy for spreading donations in the Jeju region.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330 Jeju residents aged 18 or older who

liv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had experience in donations were sampled using a simple random sampling method and survey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6, 2022 to October 10, 2022, and a total of 33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307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291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For the contents of the surve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consciousnes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donation behavior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onation behavior,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consciousness of survey subjects. The measurement of each variable is as follows. Social capital, an in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as four sub-factors of trust, network, social norms,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nsciousness was measured as two sub-factors, place attachment and social bo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consciousness on donation behavior through frequency analysis, mean differenc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24.0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n term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s age increases, donation behavior increases. Second, as a result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household members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the more negative the donation.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donation behavior according to sub-factors of social capital, it was confirmed that trust has a positive effect on donation behavior. Fourth, it was found that social participation among the sub-areas of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donation behavior. Fifth, it was confirmed that place attachment among the sub-domains of community conscious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donation behavior.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donation behavior in the Jeju region were presented by dividing them into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consciousness.

First, in terms of trust in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social capital-centered behavior, first, in order to build and maintain trust in donors, we are interested in individual management, and suggest active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donations by fundraising institutions and disclosure of donation details. Second, publicity and active image marketing were suggested to build trust in prospective donors in the local community. Third, since trust is trust not only in fundraising institutions but also in the community as a whole, efforts to build trust i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politics, and institutions are suggested.

As for the social capital-centered social participation dimension, it was suggested that, first, public debate should be made through active development of social agendas, an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roblem solving should be provided. Second, active publicity for social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at local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and diversification of participation methods were suggested. Third, it was suggested to induce social participation with a differentiated approach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region.

As for the proposal of place attachment centered on community consciousness, first, preservation and succession of community culture based on geographical area were proposed. Second, it was proposed to discover and symbolize the special features of the region using Jeju's representative specialties and places. Third, it proposed civic education through meetings such as the Civic Welfare School for local residents to improve community consciousness and strengthen place attach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searched the predictive factors for

donation behavior in Jeju region, which shows systematic cooperation among local private resources and a high sharing index, and made practical and administrative suggestions accordingly. However, since this study analyzed the survey data at a time when the social atmosphere was depressed due to coronavirus infection-19 , caution is needed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analysis results. In addition, special attention is required for generalization of the study in that the study was conducted only for the Jeju region.

Key words: act of donation, donation to Jeju region, social capital, community consciousness

<부 록> 설문지

□□□ -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사회자본과 공동체의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고, 통계법 제 13조 「비밀의 보호 등」의 규정에 따라 응답에 대한 비밀은 완벽하게 보장되며,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학문적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수거된 설문지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닛에 연구자가 별도로 보관할 예정이며, 자료의 폐기는 수집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소각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빠진 응답이 많은 설문지는 연구에 사용할 수 없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 여부 결정은 어디까지나 귀하의 자유의사이며, 설문에 응답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고, 응답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도교수: 남 진 열 (064-754-3941)
석사과정: 유 철 호 (010-3011-7582)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단체에 기부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현재 기부하고 있다.	☞ 조사 진행
	② 과거 기부하였으나 지금 기부하지 않는다.	
	③ 기부한 적 없다.	☞ 조사 중단

* 다음 질문은 귀하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시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안에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 본 설문문의 ‘기부’라 함은 자선사업이나 공익사업 등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및 시민단체 등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현금과 물품을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기부금 및 종교기부금 제외)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올해 귀하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문대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현재 결혼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5. 귀하의 종교는 유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종교 없음 ② 종교 있음

6.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 한 해 동안**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⑩ 900만원 이상

7.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⑩ 900만원 이상

8.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귀하와 함께 생계를 같이 했던 가족 중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은 귀하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명

9. 다음은 귀하의 기부행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옳고 그른 답은 없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합한 곳에 표시)

질 문 내 용		없다		있다		
1	나는 과거에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2	나는 현재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나는 향후에도 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까지 받은 혜택에 대하여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의 총 기부 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7년 미만 ⑤ 7년 이상 ~ 9년 미만 ⑥ 9년 이상

11. 귀하께서 기부를 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기부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기관을 검색하여
 ② TV, 라디오의 기부금 모집 광고(프로그램)를 통해
 ③ 모금기관(구호단체)의 온라인 메일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④ 거리 모금을 통해
 ⑤ 복지시설직원 등의 권유를 통해
 ⑥ 가족, 친지나 주변인의 권유를 통해
 ⑦ 친교 단체(동호회, 종교모임 등)의 권유를 통해
 ⑧ 소속 된 조직(직장)의 권유를 통해
 ⑨ 기타 ()

12. 다음은 귀하의 기부동기중 내적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별로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가장 적합한 곳에 표시)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2	종교적 신념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3	동정심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4	개인적 행복감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5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6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은 귀하의 기부동기중 외적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별로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가장 적합한 곳에 표시)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나 직장동료를 통해 요청받아서	①	②	③	④	⑤
3	고용주가 장려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4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자극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6	대중매체로부터의 자극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7	모범적 기부자들에 의한 자극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8	자원봉사를 한 경험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9	기부교육 또는 나눔교육에 참여했던 경험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께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기관 및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약()만원

15. 귀하께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기관 및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약()만원

16. 다음은 사회자본 중 ‘신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가장 적합한 곳에 표시)

질 문 내 용		전혀 신뢰 못함	대체로 신뢰 못함	보통이다	대체로 신뢰함	전적으로 신뢰함
1	가족	①	②	③	④	⑤
2	친척	①	②	③	④	⑤
3	이웃	①	②	③	④	⑤
4	친구	①	②	③	④	⑤
5	종교단체	①	②	③	④	⑤
6	시민단체	①	②	③	④	⑤
7	도지사	①	②	③	④	⑤
8	도의원	①	②	③	④	⑤
9	국회의원	①	②	③	④	⑤
10	시청 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11	도청 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①	②	③	④	⑤
13	도청의 정책결정 과정	①	②	③	④	⑤
14	시청의 정책결정 과정	①	②	③	④	⑤

17. 다음은 사회자본 중 ‘사회규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적합한 곳에 표시)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지역주민은 법이나 질서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지역사회에서는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지역사회 공공부문(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자 등)은 비교적 청렴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지역사회 민간부문(기업, 금융기관, 자영업 등)은 비교적 청렴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지역 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지역사회 각종 단체, 기관, 조직들은 대체로 법규를 준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음은 사회자본 중 ‘사회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참여하여 활동하십니까? (가장 적합한 곳에 표시)

질 문 내 용		전혀 참여 안함	대체로 참여 안함	보통 이다	대체로 참여함	적극 참여함
1	봉사단체	①	②	③	④	⑤
2	종교단체(기독교, 카톨릭교, 불교, 기타 등)	①	②	③	④	⑤
3	친목단체(향우회, 친목회, 동호회 등)	①	②	③	④	⑤
4	직업단체(상가번영회, 노동조합, 직능단체, 협회 등)	①	②	③	④	⑤
5	시민단체(환경단체, 비영리단체)	①	②	③	④	⑤
6	정치단체(정당)	①	②	③	④	⑤
7	우리지역사회 내 행사(모임, 축제, 문화행사 등)	①	②	③	④	⑤
8	우리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9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 등	①	②	③	④	⑤

19. 다음은 사회자본 중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적합한 곳에 표시)

20. 다음은 ‘공동체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적합한 곳에 표시)

질 문 내 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전한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옮기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은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름다운 풍속과 전통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좋은 인연을 맺기 용이하다.(쉽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